



HOMO MIGRANS

Vol.08

2013

JUNE

Homo Migrans :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Vol.8 (June 2013)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013년 6월
ISSN: 2093-3061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4세기 말~6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 홍 용 진	5
<논문>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as a Thinker on Globalization in East Asia – 크라우스 디트리히(Klaus Dittrich)	21
Mass Dictatorship and Transnational History: “Exploring the Conceptual Basis for the Connection” ————— 하 영 준	48
<연구노트>	
『이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 박 단	70
‘피해자 독일인’, ‘가해자 폴란드인’? 독일의 강제추방반대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을 둘러싼 독일-폴란드 갈등 ————— 오 승 은	80
<지금, 여기>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안 ————— 김 정 옥	85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 남 옥 정	89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 문 종 현	97
마우마우 재판의 교훈: 영국의 과거사 반성과 보상 ————— 정 희 라	103
<책을 읽고>	
『라티노와 아메리카: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임상래, 이담복스, 2013) ————— 김 연 진	107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박단,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 신 동 규	113

Homo Migrants: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June 2013
ISSN: 2093-3061

<History in Migration, Migration in History>

The Germanic migration between the end of 4th and mid 6th century:
Immigration or Invasion? _____ Yong-jin Hong 5

<Article >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as a
Thinker on Globalization in East Asia _____ Klaus Dittrich 21

Mass Dictatorship and Transnational History: Exploring the Conceptual
Basis for the Connection _____ Young Jun Ha 48

<Research Note>

A consideration on *What is Migration History?* _____ Dahn Park 70

German-Polish Controversy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Zentrum gegen
Vertreibungen* _____ Seung Eun Oh 80

<Here and Now>

Immigration Reform 2013 _____ Jeonguk Kim 85

Crisis in Syria and Syrian Refugee Problem _____ Okjeong Nam 89

Opposition against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in France – Jong-Hyun Moon 97

The Lessons of Mau Mau conviction 2013 _____ Heera Chung 103

<Book Reviews>

Latino and America: Latino, Hispanic, and Chicano, Who Are They?
(Sang-Rae Lim) _____ Youn-Jin Kim 107

French Republic and Its Ethnic Minorities(Dahn Park) _____ Dongkyu Shin 113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

4세기 말~6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홍 용 진

I. 들어가며

4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진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서양사에서 통상적으로 고대사와 중세사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이야기된다. 먼저 그리스-로마가 전개되는 지중해 지역에서 현재 유럽이라고 부르는 대륙으로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이동되어 나갔으며 ‘야만족(Barbarian)’이라 불리는 이들이 로마제국의 각 지역을 점령해 나가면서 로마제국과는 다른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어 나갔다. 물론 이들의 문명이 로마제국의 문명을 계승하고는 있었지만 그 연속성이란 이전에 비해 심대한 변형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종족의 차원에서도 게르만 부족들의 일부가 로마제국의 일원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제국의 중앙정부가 마비상태에 빠지자 이들이 새로운 정치적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도 현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줄거리를 지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역사서술의 입장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고대와 중세라는 전혀 다른 두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종종 그래왔듯이 역사가의 인식을 돕기 위해 고안된 시대구분론은 수단이기보다는 역사이해의 목적으로 탈바꿈하고 이는 시대구분을 본질화 또는 실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였다. 시대구분이라는 인식의 틀이 현실의 본질로 여겨지게 될 때 역사적 전개과정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하나는 장소이동과 같은 ‘이행’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동 및 이행의 주체 또는 원동력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현실들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정리하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은유법의 놀이일 뿐이다. 이른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이행은 사실 동질적으로 파악된 시대 내에서의 역사전개과정 다를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시대구분 설정의 맥락 속에서 “단절이나 연속이나”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단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연속을,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단절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시대구분 실체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역사적 주체 또는 원동력이 이러한 단절이나 연속의 원인으로 문제화되곤 한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이상과 같은 시대구분의 거대담론 속에서 고대의 마지막이자 중세의 첫 단계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라틴과 게르만, 문명과 야만이라는 또 다른 인종적·문화적 거대담론과 맞물려 정치적·사회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즉 “단절이나 연속이나”라는 이행의 문제는 게르만 대 로마의 이분법,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과 함께 20세기 전반기까지 각 국가별로 다양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세 가지 양자택일의 문제들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게르만족의 이동은 침입(invasion)인가, 이주(migration)인가? 둘째, 게르만족은 로마와 달리 형편없는 야만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있었는가? 셋째, 게르만족은 로마를 멸망시켰는가 아니면 로마문명을 변형·계승했는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질문들은 서로 간에 일정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유럽 내 각국의 거시적인 민족적 역사담론의 기반을 만들었다. 실제로 현대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역사의 근원을 그리스문명이나 로마제국이 아니라 바로 대이동으로 유럽대륙 곳곳에 정착한 다양한 야만족들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세 질문들은 각각의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게 된다.

본 글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대한 기존의 정형화된 역사서술들을 살펴

1) Peter Heather, *Empires and Barbarians. The Fall of Rome and the Birth of Europ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9), 12-15.

본 후 게르만족의 이동이 실제로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해석의 문제: 침입? 이주?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20세기 중반까지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 대체적으로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 하나는 프랑스나 영국 학자들이 명명한 ‘야만인들의 침입(invasions barbares)’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계 학자들이 명명한 ‘민족이주(Völkerwanderung)’이다. 이 두 가지 용어는 게르만족을 야만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한 종족으로 보는가의 대립은 물론 그들의 이동을 침입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주로 보는가라는 대립을 함축하고 있다. 두 개념들은 모두 로마 말기의 ‘게르만족’에 현대의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서로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게르만 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 또는 문명으로 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두 개념이 어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²⁾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유럽권 중심으로 뿌리깊게 사용되어 온 ‘야만인들의 침입’ 개념은 ‘야만인’과 ‘침입’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야만인’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알아두어야 할 점은 로마인들에게 ‘바르바루스(barbarus)’란 오늘날과 같이 특정하게 분류된 미개문명 또는 야만의 종족이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보다 로마인들에게 바르바루스란 로마의 문명이나 제도, 습관 그리고 라틴어를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의미했다. 더군다나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종교로 정착하는 과정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덜 기독교화된 사람들을 의미했다.

특히 로마인들은 이 ‘바르바루스’라는 말을 명확하게 구분된 국경을 중심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로마제국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식의 생활 및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2)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는 *Ibid.*, 22-35.

부류들은 모두 ‘바르바루스’라고 지칭되었다. ‘바르바루스’란 ‘로마누스’와 짝을 이루는 대립적인 단어로 명사형보다는 형용사형으로 사용되었으며 양자의 사이는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이 두 단어는 문화적 방식이나 정신상태 등에 적용되는 말로 현대적 의미의 국적이나 인종, 민족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바르바루스’라는 용어에는 ‘사납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성격’이라는 의미가 부가되었다. 즉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르바루스’라고 부를 수 있었으며, 비록 게르만인일지라도 로마의 문화에 익숙하다면 ‘로마누스’라 부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로마인들이 로마 바깥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들을 ‘바르바루스’라고 부를 때에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야만인’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게 된다. 물론 로마제국 바깥의 몇몇 부족들이 실제로 잔혹한 폭력을 수반하며 로마국경을 넘었지만 큰 충돌 없이 이주하여 정착하고 토지를 개척한 경우도 있었으며 폭력을 수반한 경우라도 로마제국 영토 내에서 황제와 동맹(foedus)관계를 맺는 왕국을 건설하고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다.³⁾

다음으로 ‘침입’이라는 용어는 동질적인 한 집단이 약탈과 파괴, 복종을 일삼으며 토착민의 영토에 갑작스럽고도 폭력적으로 진입해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게르만족의 이동은 그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게르만족이라는 명칭 아래 하나로 묶인 여러 종족들 또한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⁴⁾ 특히 로마국경 근처에 거주하던 종족들의 경우와 멀리서 이동해 온 종족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즉 몇몇 부족들의 침입을 게르만족 전체에 확대적용 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상과 같이 ‘야만인의 침입’을 강조하는 역사서술은 다시 단절론과

3) Guy Halsall, “The Barbarian Invasions”, Paul Fouracre(ed.),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I. c.500-c.700*(Cambridge, 2009), 38-41.

4)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역사서술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게르만족의 침입’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가장 평화적으로 정착한 프랑크족의 로마 문화 계승, 특히 아타나시우스파를 교의로 삼는 로마가톨릭의 개종을 부각시킨다.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이면서도 이 ‘침입’활동에서는 예외를 이루고 있는 듯이 서술된다.

연속론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절론은 야만인의 무도한 폭력사태와 침탈로 로마제국이 멸망했으며 이후 암흑시대가 도래했다는 입장이다. 연속론은 게르만족이 기독교와 로마문명을 계승했지만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쇠퇴시켰으며 이후 전개된 게르만족의 문명이라는 것도 그나마 로마문명의 잔재로 독자적인 창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본다. 앞의 개념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민족들의 이주’라는 개념은 중립적이고도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개념 또한 이질적이고도 다양한 게르만족들 및 이들의 이동방식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마치 뛰어난 지도자가 대규모의 민중을 이끌고 새로운 터전을 찾고 정복하는 모습의 이 유형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세기 말 이후에 시작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2세기경부터 존재했던 또 다른 방식의 다양한 이주를 놓치고 있다. 게다가 이 시기의 여러 종족들에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개념은 독일에서 민족주의적 성향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생활공간(lebensraum)’의 확대와 같은 독일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⁵⁾

어쨌든 이 입장에서도 게르만족의 이동은 단절론과 연속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이해된다. 단절론의 입장은 로마문명을 대체하고 중세문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게르만문명의 창조성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로마문명은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소멸되며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문명의 원천은 모두 게르만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보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이 연속론의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게르만 문명이 어쨌든 로마문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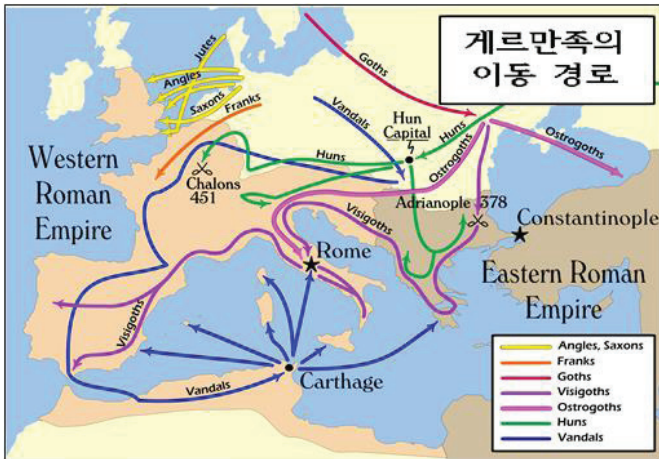
5) 이러한 입장에서 월터 고포트(Walter Goffart)는 독일식의 ‘단일한 게르만족의 이주’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W. Goffart, *Barbarian Tides. The Migration Age and the Later Roman Empire*(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2006), 12-22참조. 게르만족의 ‘생활공간의 확장’과 관련하여 신화화된 또 다른 역사적 소재로는 한자동맹의 교역활동과 튜튼 기사단의 프러시아 진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사건은 동질적인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뭉뚱그려져서 각 국가의 민족정체성에 따라 부정성과 긍정성을 서로 다르게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두 입장들은 각각의 경우에 단절론과 연속론에 따라 교차적으로 범주화된다. 물론 두 종류의 단절론은 오늘날에 와서는 신빙성을 상당히 상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연속론의 경우에는 로마문명과 게르만문명의 만남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게르만족이 결국 로마제국 외부에서 건너온 이른바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입장과 그가 처한 현실상황에 많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인다. “게르만 이주민들은 문명화된 로마인들의 문화에 얼마큼 동화되고 이를 계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두 가지 해석을 산출한다. 첫 번째는 게르만인들이 로마문명을 흠모하면서도 결국 그 쇠퇴를 가속화시켰다는 해석으로 문화적으로 조야한 ‘게르만’ 이민자들이 로마문명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파괴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이동이 폭력적인 침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문화적 수준이 낮은 게르만인들은 로마문명을 온전히 계승할 수 없었고 총체적인 야만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이러한 입장에는 독일 제3제국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부여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게르만적인 해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이민자들의 쇄도와 관련된 담론들에 연결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침입’은 다시 한 번 일부 (우파적)사회 지지를 획득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입장으로 두 번째 해석이 등장하는 데 이 입장은 게르만족의 이동은 로마제국 쇠퇴의 원인이나 가속화 요인이 아니라 바로 그 쇠퇴의 영향 아래 발생한 현상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게르만인들의 로마유입은 로마제국 자체의 중앙정부 체계, 특히 이민족 동화체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이미 멸망해 가는 로마문명을 그나마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덕분이었다는 해석이다.⁶⁾

6) W. Goffart, “The Barbarians in Late Antiquity and How They Were Accommodated in the West”, Lester K. Little & Barbara H. Rosenwein(ed.), *Debating the Middle Ages - Issues and Readings*(Oxford: Blackwell, 2007), 25-44.

III. 게르만족들의 다양한 이동들

그렇다면 실제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갑작스럽게 쇄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대이동이 사실 약 200여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적 기준에서 혁명과 같은 급격한 단절이 될 수가 없었으며 그 방식 또한 대규모의 일괄적인 이동이 될 수도 없었다.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있었으며, 같은 종족 중에서도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이동했으며 정착방식 또한 서로 매우 달랐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에 이동한 부족도 있었으며 게르만족의 이동과 영토장악이 로마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더 이상 제권을 계승할 황제가 없어 서로마제국이 멸망 아닌 멸망을 했을 때에도 기존의 로마시민들은 여전히 로마식으로 살고 있었다.⁷⁾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제국 쇠퇴기인 2세기 말부터 카롤루스 제국 등장 전인 8세기 까지를 ‘후기 고대(Late Antiquity)’라는 시대로 따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지중해 중심의 로마문명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7) 예를 들어 아일린 파워, 이종인 옮김, 『중세의 사람들』 (서울: 즐거운 상상, 2010), 1장을 보라.

역사가들은 게르만족 대이동의 출발은 375년에 중앙아시아의 훈족이 서진하여 서고트(Wisigoth)족을 압박하면서 발생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서고트족은 로마에 피난을 요청하였고 로마는 다뉴브강 어귀에 이들의 정착을 승락했지만 무기력과 부패에 빠진 로마행정체계는 이들을 기아선상에 빠지게 하였다. 생존을 목적으로 서고트족은 로마제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고트족의 로마약탈이 시작되었다. 378년 아드리아노폴리스에서 로마정예군을 격파한 서고트족은 로마제국과 동맹(foedus)⁸⁾ 관계를 맺고 일리리아 지역에 정착하였다. 로마내정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한 서고트족은 로마내분 사태에 휩싸였고 이내 그 수장(왕)이었던 알라릭(Alaric)은 410년 로마를 약탈하기에 이른다.⁹⁾ 이후 알라릭이 죽자 이탈리아 반도에 머무르던 서고트족은 황제 호노리우스(Honorius, 395-423)는 418년 서고트족에게 이베리아반도 남부에 정착하여 자치왕국을 건설할 것을 허락하고 다시금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4세기 말에 시작된 최초의 이동이었던 서고트족의 이동은 이상과 같이 40년 넘게 전개되었으며 일방적인 침략이었다기보다는 로마제국 내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개된 일련의 폭력적 사태들이었다. 이는 게르만족이 특별히 야만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로마제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후 로마의 군사적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내분에 휘말리며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로마약탈을 주도했던 서고트인들이 비기독교도였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부정적 이미지의 ‘바르바루스’ 개념을 덧씌우는 계기가 되었다.

서고트족에 뒤이어 다양한 국경외부의 이민족들이 로마제국으로 이동을

- 8) ‘포이두스(foedus)’란 라틴어로 신의(fides)에서 유래한 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과 군사원조를 대가로 일정지역의 영토점유와 자치를 인정하는 계약이다. 로마 팽창의 원동력이었던 라틴동맹도 시대적 맥락은 다르지만 이러한 포에두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포이두스(동맹)’ 관계를 맺은 세력들을 복수로 ‘포이테라티이(foederatii)’라고 부른다.
- 9) 알라릭의 로마약탈은 로마시가 로마역사상 처음으로 외적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기원전 390년 경 켈트인들의 로마시 포위나 제2차 포이니전쟁(기원전 218-202) 당시의 한니발 침공 당시에도 로마시가 점령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로마약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무기력에 빠진 로마인들이 어떠한 저항을 한 흔적도 없으며 일부는 이 사태를 기독교 개종 탓으로 돌리곤 했다. 이러한 입장들을 반박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가 413년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저술하였다.

해왔다. 반달, 수에비, 알라만족이 406년에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 지역으로 진입하였고 곧 이어 부르군트족이 이들을 뒤따랐다. 알라만족과 부르군트족이 라인강 상류에 자리잡은 반면 서고트족과 수에비족은 이베리아 반도로, 반달족은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지역에 로마와 포이두스 관계를 맺고 독자적인 왕국들을 건설하였으며 서로의 접경지역을 두고 끊임없이 세력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이들의 정착이 아직 로마제국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450년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이 로마제국으로 서진하면서 시작되었다.

훈족의 침입은 포이두스 계약을 시험하는 장이되었다. 실제로 각 게르만왕국의 부대로 이루어진 로마군대는 451년 현재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샬롱에서 훈족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대패한 훈족은 로마로 기수를 돌렸으나 로마총대주교 레오 1세와의 협상으로 거액의 재물을 받고 현재의 동유럽지역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후 동맹군을 이끌었던 장군 아에티우스(Aëtius)는 앵글로족과 색센(색슨)족의 침입을 받은 브리타니아섬의 켈트인(브리튼, 브르통)들을 방어하는데 성공한다.¹⁰⁾ 게르만족 이동의 또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앵글로족과 색센족은 사실 브리타니아 북부 픽트족의 침입을 받은 브리튼인들을 포이두스 원군으로 도와주기 위해 도착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픽트족을 물리친 후 브리튼인들을 몰아내고 비옥한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였다. 아에티우스의 활약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저지하지만 그의 사후 브리타니아는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브리튼인들은 현재의 스코틀랜드 로우랜드지역과 웨일즈, 아일랜드, 그리고 갈리아 북서부 지역(현재 브르타뉴)에 정착하게 된다. 평화를 되찾은 로마제국에서 문제는 다시 내부에서 발생했다. 454년 아에티우스의 지나친 성공을 질투한 황제 발렌티아누스 3세가 아이티우스를 교살했고 455년에는 아에티우스의

10)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의 켈트인들은 이미 기원전 1세기 경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제국에 편입된 후 로마제국의 구성원으로 로마화된 상태에 있었다. 즉 이들은 로마의 관점에서 '바르바루스'가 아닌 '로마누스'였다. 다른 한편 켈트인들을 보호한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 장군은 로마인 어머니와 스키티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서'왕 전설의 기원을 이루게 된다.

부하장군들이 복수를 외치며 다시 황제를 암살하기에 이른다. 이후 20년간 군인출신의 황제들이 거듭되는 암살과 반란으로 제위를 이어갔고 결국 그 마지막 주자였던 훈족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476년 마지막 서로마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 추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서로마제국이 막을 내리게 된다. 오도아케르는 현명하게도(?) 황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반란에 휩싸인 황위의 보전을 걱정하지 않았다. 로마는 영원하다고 믿어버리는 습관 때문이었을까?

서로마제국 황위단절 이후에도 강력한 두 게르만 부족이 추가로 서로마제국 지역으로 유입되어 들어왔다. 그 하나는 오도아케르 세력을 몰아내고 이탈리아 전역을 장악한 동고트(Ostrogoth)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벨기에 지역에서 건너온 프랑크(Frank/Franc)족이었다. 동고트왕 테오도리쿠스(Theodoricus, 재위474-526)는 서쪽으로는 프랑크 및 부르군트왕국과 동쪽으로는 동로마제국과 경쟁하며 강력한 왕국을 수립하였고 이탈리아를 장악했다는 자부심 아래 궁정의 로마화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의 통치는 구로마귀족을 중심으로 원로원을 다시 편성하고 로마식의 관직들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테오도리쿠스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보에티우스(Boethius, 470-525)의 학문적 활동 또한 이러한 동고트왕국의 로마화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메로베우스 가문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한 프랑크왕국은 주변 게르만족과 왕국들을 정복해 나가며 최종적인 유럽대륙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특히 다른 게르만족들이 대부분 아리우스파를 신봉했던 반면 프랑크왕국의 초대왕인 클로도베쿠스(Clodovechus, 재위 481-511)¹¹⁾는 로마제국의 공식교리로 채택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11)흔히 클로비스(Clovis)라고 불린다. 게르만적 특징인 'C'자를 제외하면 그의 이름은 프랑스왕의 이름인 '루이(LOVIS, Louis)'의 어원이 된다.

4세기 말~6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대이동

하였고 프랑크왕국의 성공은 곧 아타나시우스파의 성공으로 이어졌다.¹²⁾



6세기 중반 내분과 내전을 수습한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527-565)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여 옛 로마제국 영토수복 원정에 나섰다. 차례로 동고트왕국과 반달왕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일대를 다시 수중에

12) 아리우스파(Arianism)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제 아리우스(Arius, 256-336)가 주장한 신학적 교의를 추종하는 자들로 신과 예수의 관계를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로, 즉 신과 인간의 관계로 보았다. 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였던 알렉산드로스(Alexandros, 250-326)와 그의 후임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8-373)는 현재 가톨릭의 정통교리인 삼위일체를 주장하였다. 전자가 그노시즘과 철저한 금욕주의, 메시아주의 등의 특징을 지니는 반면, 후자는 그리스철학의 논리학에 의한 신학의 체계화와 교회조직의 제국적 조직화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알렉산드로스와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 공인을 천명한 밀라노칙령(313) 반포와 기독교 박해 종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재 아래 열린 니카이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교의는 이단으로 판정받고 아타나시우스파의 교의가 정통교리로 정착하였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나 보에티우스와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를 사변적으로 옹호하였지만 절대다수의 게르만 부족에게 가장 널리 퍼진 신앙은 신과 예수를 부자관계로 보는 아리우스의 교의였다.

넣었다. 하지만 7세기에 이 영토들은 후대황제들의 무관심 속에서 새롭게 지중해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던 종교공동체(Umma)인 이슬람세력에 의해 장악된다. 이탈리아 반도에는 동로마제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롬바르디아인들이 반도 여기저기에 정착하여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고 서고트왕국은 이슬람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 이제 남은 곳은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브리타니아의 7왕국(Heptarchy)¹³⁾과 점점 팽해 나가고 있던 프랑크왕국만 남게 된다.

IV. 게르만족의 다양성, 이동방식의 다양성

이처럼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단일집단의 일방적 쇄도가 아니라 다양한 부족들이 전개한 다양한 이동과 정착의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이 추가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게르만족으로 포장하고 있는 각 부족들은 사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세력들이었으며 적어도 로마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2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변천들을 겪으며 제국 외곽에서 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4세기 말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로마제국 내 정착은 각 부족들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이 각 왕국들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4세기 말부터 이동을 시작한 게르만 부족들의 명칭들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 58-120)가 저술한 『게르마니아(Germania)』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뉴브강을 따라 거주했다고 하는 수에비족과 랑고바르디족(롬바르디아족)을 제외하면 타키투스의 저서에는 4세기 말에 등장하는

13) 앵글로족과 색슨족은 브리타니아 각 지역에 흩어져 7개의 왕국들을 세웠다. 북부의 노섬브리아(Northumbria), 중부의 머시아(Mercia), 동부의 이스트앵글리아(East Anglia)와 켄트(Kent), 남부 해안가의 웨식스(Wessex), 서식스(Sussex), 에식스(Essex)가 이 왕국들로 이 중 서식스왕국이 앨프리드대왕 치세(Alfred the Great, 871-899) 때부터 데인족의 침략에 맞서면서 7왕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통일은 앨프리드의 손자인 에셀스탄(Æþelstan, Aethelstan)으로 그가 최초로 ‘잉글랜드인들의 왕(King of the English)’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게르만족의 명칭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¹⁴⁾ 즉 이 사실은 2세기 동안 게르만족 사이에 거대한 부족재편 또는 로마제국 국경 바깥에서의 대이동이 이루어졌으며 4세기 말에 등장하고 있는 부족들의 이름은 바로 이 재편과 대이동의 결과라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재편의 과정은 또한 로마제국의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로마가 팽창해 나갈 때 게르만 부족들을 제압하던 이이제이(以夷制夷), 또는 토사구팽(兔死狗烹) 방식의 외교전략은 게르만 부족들 간의 단합을 저해하였다. 하지만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138) 황제 치세에 로마의 영토팽창이 중단되고 2세기 말에 이르러 황위를 둘러싼 로마의 내분과 내전이 가열화 되어 가면서 3세기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사회경제적 체계는 지방 수준으로 파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3세기 말부터는 정치적으로도 4황제시대(Tetrarchy)와 동서로마 분리가 이루어져 제국의 통일성이 급속도로 깨지기 시작했다.¹⁵⁾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게르만 부족들은 보다 큰 단위로 통합·재편되기 시작했고 4세기 말에는 타키투스가 관찰한 부족 외에 새로운 명칭의 부족들이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각 부족들은 나름대로 전사지도자와 제사장, 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즉 게르만족은 다양한 부족들로 이루어져 나름대로의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로마제국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이들의 이동을 단순히 인구압에 의한 생활공간 확장도 아니며 혼족에 의한 도미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재고하게 한다. 즉 이들의 이동은 뿌리 깊게 내려온 게르만족의 정치생활과 로마 정치생활의 복잡한 상호관계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로마의 사회경제적 파편화와 정치내분은 서로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서로 다른 로마정치 지도자들에게 더욱 깊이 연루시키면서 이들의 로마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14) 타키투스, 천병희 옮김, 『게르마니아』 (서울: 숲, 2012), 102-103, 106-107.

15) Richard Hodges & David Whitehouse, "The Decline of the Western Empire", Lester K. Little & Barbara H. Rosenwein(eds.), *Debating the Middle Ages: Issues and Readings* (Malden, Oxford: Blackwell, 2007), 58-72.

16) G. Halsall, "The Barbarian Invasions", 45-48.

점에서 소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여러 부족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도매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타키투스가 게르마니아 주민들이 “다른 종족과의 혼인으로서는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 종족”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게르마니족은 갈리족이나 그 밖의 다른 종족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¹⁷⁾ 이방인의 눈에는 차이보다는 동일한 측면들이 먼저 눈에 띄게 마련이다.

두 번째로 정착과 관련하여 게르만족들의 정착은 인구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좌우한 듯이 보인다. 먼저 인구문제는 이동거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그 부족의 원거주지로부터 멀리 나아간 부족일수록 지배층의 인구부족으로 피지배층에 대한 통치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는 특히 반달족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전혀 다른 기후의 북아프리카에 정착하면서 인구재생산에 차질을 빚는 반면 토착민족들과의 결혼도 금지하여 지배인구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소수지배층에 의한 잔인하고 폭압적인 통치로 이어졌고 이는 피지배층과의 정서적·문화적 동화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서고트왕국이나 동고트왕국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동고트왕국은 이탈리아의 토착 귀족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정반대가 되는 부족은 로마제국 소멸 이후 건너온 프랑크족이었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게르만 부족들 중 가장 짧았으며 이들이 점령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곳이어서 이들이 스스로 영토를 개척한 곳이 많았다. 국경을 두고 이미 오래 전부터 갈리아 북부지방과 왕래가 많았던 이들은 원주민들과 비교적 잘 동화된 편이었다. 또한 얼마든지 원거주지로부터 충분한 인구를 충원할 수 있었고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인구재생산에 큰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앵글로족과 색슨족의 경우이다. 이들은 프랑크족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원주민들과 격렬한 투쟁을 치러야 했다는 점에서 프랑크족과는 전혀 달랐다. 이렇듯 각 부족들은 점령지와 그 부족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착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정착의 성공유무가

17)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30, 78-80.

갈리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의 이동과 정착을 보다 복잡다단한 경로로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V. 나가며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게르만족의 이동은 침입인가, 이주인가? 양자 모두일 수도 있고 양자 모두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의 이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리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법의 배제는 이들을 야만상태와 창조적 문명으로 구분하는 문제와도 로마문명의 계승문제에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부족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점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위해서는 기존 사료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고고학적 탐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이 보인다.

아울러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점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로마제국 쇠퇴의 원인은 역설적으로 그 팽창의 원동력인 로마의 군사 및 재정체계와 정치와의 독특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오히려 이러한 내부문제의 여파로 발생한 것이다. 중앙행정체계의 마비와 부패, 기나긴 내전 상황은 이미 제국을 해체시키고 문명을 쇠퇴시키고 있었다. 물론 게르만족 왕국들이 로마문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그렇다할지라도 게르만족은 쇠퇴의 주요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전개된 장기적인 기간을 고려한다면 고대 말과 중세 초 시기의 급격한 단절이라는, 또는 영광스런 로마의 비극적 몰락이라는 극화된 이미지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몰역사적 인식은 다시 게르만족을 하나로 뭉뚱그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다양한 로마제국 구성원들과 다양한 게르만족들 사이의

장기적인 문화접변과정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야만인들의 침입”이라는 표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hadrianus@daum.net

■ 논문 ■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as a Thinker on
Globalization in East Asia

Klaus Dittrich

I . Introduction

Isabella Bird was an exceptional woman. She was born in Boroughbridge, a small town in Northern England, in 1831 where she grew up in an Anglican clerical household. Bird's husband whom she married in 1881 was ten years her junior and passed away only a few years after marriage.¹⁾ She never had children. Instead, travel was her passion and kept her busy throughout her life. Bird made a first trip to North America in her early twenties, an unusual exercise for an unaccompanied woman at this time. In 1872, she started a trip around the world with extended stays in New Zealand, Hawaii and the Rocky Mountains. In 1889, she was en route to India, Tibet, Persia, Armenia and Turke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he travelled to Morocco before she died in Edinburgh in 1904. As a traveller, her endurance was indescribable; she progressed in all meteorological conditions, be it icy wind and snow, torrential inundations or the hot and sticky air of the summer. Bird published accounts of all her trips. This helped her to gain popularity and recognition, underlined – inter alia – by her admission as the first

1) After marriage Isabella Bird took her husband's name Bishop. Some of her books are published under this name. For consistency reasons I use her maiden name Isabella Bird throughout this article.

female member to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Bird was for sure one of the most famous Anglophone lady travellers of her time.²⁾

Bird travelled two times to East Asia. Her first trip brought her to Japan in 1878. Her book *Unbeaten Tracks in Japan. An account of travels on horseback in the interior, including visits to the aborigines of Yezo and the shrines of Nikkô and Isé* appeared in 1880.³⁾ Bird visited East Asia for the second time in the mid-1890s. Korea was the main destination of this trip; due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she also visited China, Japan and far eastern Russia. Her book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published in 1897, was the major outcome of this trip.⁴⁾ An additional volume on China entitled *The Yangtze Valley and beyond. An account of journeys in China, chiefly in the province of Sze Chuan and among the Man-tze of the Somo territory* appeared in 1899.⁵⁾

Her book on Korea counts as one of the most popular late nineteenth-century publications on the peninsula. Historians have published numerous studies of Bird's works on East Asia, which is

2) Olive Checkland, *Isabella Bird and a woman's right to do what she can do well* (Aberdeen: Scottish Cultural Press, 1996).

3) Isabella Bird, *Unbeaten Tracks in Japan. An account of travels on horseback in the interior, including visits to the aborigines of Yezo and the shrines of Nikkô and Isé* (London: John Murray, 1880).

4)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London: John Murray, 1897).

5) Isabella Bird Bishop, *The Yangtze Valley and beyond. An account of journeys in China, chiefly in the province of Sze Chuan and among the Man-tze of the Somo territory* (London: John Murray, 1899).

why Bird is a well known person even today.⁶⁾ Her books provide ample ethnographic details on daily life in Japan, Korea and China over one hundred years ago. Bird’s viewpoints have occasionally been shared by researchers as accurate criticism of actu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her works have also been criticised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⁷⁾ These studies are all helpful in understanding Bird’s writings. However, I think that most scholarship misses one central point. When reading Bird’s books on East Asia, I realised that her observations and ideas are fundamentally related to phenomena of global interconnectedness.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wave of globaliza-

-
- 6) Recent scholarship includes Michael Finch, “Western Encounters with Korean Culture. From Hendrik Hamel to Isabella Bird Bishop,” *Eon-eo-wa munhwa*, 3(2007), 1-24; Hakjoon Kim, “Seoyangindeul-i gwas-chamhan Joseon-ui moseupdeul (jae 3 hoe): Cheongil jeonjaeng balbal jikjeon-euro-buteo Joseon-ui mangguk-kkaji-ui sigi,” *Hanguk jeongchi yeongu*, 18(2009), 227-294; Hee-young Kim, “Orientallijeum-gwa 19-segi mal seoyangin-ui Joseon insik: Isabella Bodeu Bisypop-ui ‘Joseon-gwa geu iut nara’-reul jungsim-euro,” *Gyeongju sahak*, 26(2007), 165-181; Hee-young Kim, “Jegukjuui yeoseong Bisypop-ui yeohaenggi-e natanan Joseon yeoseong-ui pyosang,” *Donghak yeongu*, 24(2008), 145-163; Park-kwang Choi, “Oegukin-i bon geundae Joseon-gwa dongbuk Asia-ui gakchuk: Isabella Bodeu Bisypop-ui ‘Joseon-gwa geu iut nara’,” *Asia munhwa yeongu*, 15(2008), 253-280; Jonggab Kim, “Taja-ui balgyeong? Taja-ui balmyeong? Bisypop-gwa Kkeuriseuteba-ui yeohaenggi,” *Bigyo Hangukhak*, 20(2012), 219-247; Young-Ah Lee, “19-segi mal seoyangin-ui nun-e bichin Joseon sahoe-ui hyeonsil-gwa Donghak nongmin bonggi: Isabella Beodeu Bisypop-ui ‘Joseon-gwa geu iut nara’-reul jungsim-euro,” *Donghak yeongu*, 23(2007), 1-23; Hua-jeong Seok, “Race, Imperialism, and Reconstructing Selves: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in European Travel Literature,” Rotem Kowner, Walter Demel, eds.,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Western and Eastern Constructions* (Leiden: Brill, 2012), 261-279; Moon-su Sin, “Dongbang-ui tacha: Isabella Beodeu Bisypop-ui ‘Joseon-gwa geu iut nara’,” *Hanguk munhwa*, 46(2009), 119-138.
- 7) On the tensions between enlightenment and postcolonial interpretations and possibilities to overcome them see recently Sebastian Conrad, “Enlightenment in Global History: A Historiographical Critiqu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7(2012), 999-1027.

tion.⁸⁾ The term globalization,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process that intensified the circulation of people, ideas and commodities over national and continental boundaries.⁹⁾ Because of the impact of globalizing forces on societies around the globe, recent syntheses conceptualise the nineteenth century as a century that saw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or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¹⁰⁾

Bird profited from globalization.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steamships, railways and the telegraph made travel faster and much more convenient. Bird travelled at a time when it had become legally possible for foreigners to travel in East Asia. Her trips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the unequal treaties which had opened China, Japan and eventually Korea to European travellers. She travelled on the infrastructures of British power. This reminds us that the period was characterised by power hierarchies which are usually subsumed under the catchword imperialism.

But Bird not only profited from globalization, she also observed how globalization transformed the East Asian societies. Based on her three books on Japan, Korea and China,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Isabella Bird can be regarded as a thinker of globalization. Analysing how she articulated globalizing changes in East Asia, I put a special emphasis on the location of agency. In particular I want to show that, according to Bird, the active players involved in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 were not foreign imperialists, but East Asian actors themselves. In the first part I focus on Bird’s observations. The introductory and concluding parts of her

8) Kevin H. O’Rourke, Jeffrey G. Williamson,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IT Press, 1999).

9) Jürgen Osterhammel, Niels P. Petersson, *Geschichte der Globalisierung. Dimensionen, Prozesse, Epochen* (München: Beck, 2003).

10) Christopher Alan Bayly,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Global Connections and Comparisons* (Malden: Blackwell, 2004); Jürgen Osterhammel, *Die Verwandlung der Welt: Eine 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München: Beck, 2009).

books offer ample material in this regard. In the second part, I will confront her ideas to early twentieth-century as well as current historiographical approaches to global interconnectedness which provide similar interpretative frameworks.

II. Isabella Bird's View on Globalization in Late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Today,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East Asian countries belong to the most prosperous in the world. This has not always been the case. The nineteenth century has been discussed as the period of the “great divergence”, the historically short period when Europe outperformed Asia.¹¹⁾ Moreover,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as the high time of imperialism. During this period of imperial supremacy and arrogance, most European contemporaries believed that the hierarchy between a strong Europe and a weak Asia would be quasi-eternal. The dominant European nineteenth-century ideology of Orientalism regarded non-European societies as backward and uncivilized.¹²⁾ On the one hand, racial theories from the first denied non-Europeans the ability to access modernity.¹³⁾ On the other hand, these societies were potential and actual objects of civilizing missions carried out by imperial powers, involving violent interference with local social systems.¹⁴⁾

11)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12)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

13) Michael Keevak, *Becoming yellow: A short history of racial think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4) Alice Conklin, *A mission to civilize: the republican idea of empire in France and West Africa, 1895-193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Carey A. Watt, Michael Mann, eds., *Civilizing Missions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South Asia. From Improvement to Development* (London/New York: Anthem Press, 2011).

However, when East Asian countries are prosperous today, they did not achieve this status through new genetic combinations or European civilizing missions. These ideologies proved to be misleading. Nineteenth-century Europeans over-estimated their power to transform the world. Instead, East Asian countries achieved prosperity through their own efforts. In this process, the ability to adopt innovations made elsewhere played a key role. Learning from abroad and usefully combining foreign elements with local ones was – and still is – a highly active and creative endeavour. In this perspective, not European imperialists but the agency of East Asian actors mattered most in transforming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ociety. In the following I want to show that Isabella Bird, alread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f high imperialism, foresaw such a trajectory.

Most nineteenth century European travel accounts conveyed a worldview that implied the ideas of racism and the civilizing mission. According to Mary Louise Pratt, travel writers moved in “contact zones”, spaces of encounters “in which peoples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separated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establish ongoing relations, usually involving conditions of coercion, radical inequality, and intractable conflict”.¹⁵⁾ Such a disposition was not absent from Bird’s writings. In her books we find indications of an orientalist perspective on East Asia. Bird, for example, referred to Korea’s and China’s “unreformed Orientalism”.¹⁶⁾ Bird described many East Asian villages and cities as characterised by their mud, smell, filth and poverty.¹⁷⁾ In her contacts with local people she sometimes showed a significant mental distanc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she accepted them as her equals. The Orientalist dimension was an intrinsic part of her accounts and

15)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1992), 6.

16) For example Bishop, *Korea*, I, 14.

17) See for example her first arrival to Seoul, Bishop, *Korea*, I, 32–33, 36.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I do not intend to downplay its centrality. More in general, however, Bird’s writings on East Asia were more than “colonialist portraits”¹⁸⁾. One of the central points of her books is the fascination she developed for Japan, Korea and China. Bird considered the East Asian countries as of high cultural standing and was convinced of their ability to join an interconnected modern world on their own terms. In particular, she highlighted the East Asian societies’ ability to appropriate and make sense of foreign knowledge. Bird’s outlook was therefore fundamentally optimistic and forward-looking.

This disposition becomes evident in her book on Japan. “Old Japan is no more,”¹⁹⁾ was one of the central messages of her introductory chapter. Bird addressed a readership which still imagined Japan as a country ruled by the shogun and hostile to foreign countries. But, Bird argued, all encyclopaedic knowledge on Japan was now out-dated. She therefore underlined that, since 1868, the country had embarked on a decisive project of adopting foreign knowledge. The Iwakura mission which left Japan to North America and Europe in 1871 as well as the abolition of feudalism best underlined these changes in Bird’s eyes.²⁰⁾

Bird rationalised the appropriation of foreign cultural elements as a powerful process. “Many Europeans ridicule Japanese progress as ‘imitation’, [...] yet Japan holds on her course, and [...] I see no reason to distrust the permanence of a movement which has isolated her from other Oriental nations, and which [...] is growing and broadening daily.”²¹⁾ With her critique of those Europeans who ridi-

18) Todd A. Henry, “Sanitizing Empire: Japanese Articulations of Korean Otherness and the Construction of Early Colonial Seoul, 1905-191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4(2005), 651.

19) Bird, *Japan*, I, 9.

20) The Iwakura mission was composed of high-ranking officials headed by Iwakura Tomomi. See Ian Nish, ed., *The Iwakura mission in America and Europe: a new assessment* (Richmond: Japan Library, 1998).

21) Bird, *Japan*, I, 9.

culed the Japanese appropriation of things foreign Bird rationalised the normality of transnational learning processes.²²⁾ Furthermore, Bird compared the appropriation of Western cultural assets with similar appropriation processes to Japan in the past, such as Chinese and Buddhist civilisation which further banalized intercultural exchange. Despite the imperialistic context, the “civilisation which comes from the far Wes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n appeared as just another aspect of cultural interaction.²³⁾

The permanence of these changes was a central point Bird emphasised several times throughout her account. Many European observers expected that the appropriation of foreign cultural elements would be superficial and ephemeral. Japan, according to this opinion, would fall back in a state of barbarism after some quick and shallow reform experiments would have come to an end. Bird, however, did not see such a danger in Japan. She insisted: “With the impetus of the new movement, springing mainly from the people, and from within, not from without, we have undoubtedly two of the elements of permanence.”²⁴⁾ On the one hand, Bird saw support for reforms by large parts of the population as a sign for durability. On the other hand, and more importantly, reforms were successful because they were orchestrated “from within”. Foreigners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forming Japan, at least not primarily. Instead, Japanese actors themselves decided about the reform path Japan was to take. This emphasis on changes coming “from within”, and thus on Japanese agency, was paradigmatic for Bird’s writings.

This becomes particularly clear when Bird approached the issue of foreign employees in Japanese service. These foreigners played a

22)On this point see also Robert A. Rosenstone, “Learning From Those ‘Imitative’ Japanese: Another Side of the American Experience in the Mikado’s Empir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5(1980), 572-595.

23)Bird, *Japan*, I, 10.

24)Bird, *Japan*, I, 9. Italics in the original.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crucial role in Japan’s transformation process.²⁵⁾ But Bird insisted that the Japanese closely circumscribed the activities of the foreign experts: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y are there as helpers only, without actual authority, as servants and not as masters, and that [...] the greater their energy, ability, and capacity for training, the sooner are their services dispensed with, and one department after another passes from foreign into native management. The retention of foreign employé forms no part of the programme of progress. ‘Japan for the Japanese’ is the motto of Japanese patriotism; the ‘Barbarians’ are to be used, and dispensed with as soon as possible.”²⁶⁾

This quote exemplarily uncovers the mechanics of the Japanese transformation process. The Japanese decision makers have the agency over the reform programme. The foreign employees are the “servants” or “barbarians” who are working for the profit of Japan. Throughout her account, Bird provided numerous concrete examples of how Japan appropriated things foreign, including schools, the police force, prisons, railway lines and so on. The appropriation process could sometimes be clumsy, for example when Japanese men lacked the knowledge how to wear a jacket properly or when Bird experienced “Western”-style banquets as boring.²⁷⁾ Occasionally, Bird complained about the “many extravagances and absurdities” of the Japanese’ embrace of foreign knowledge.²⁸⁾ But, in general, she positively evaluated the outcomes of Japan’s reform process:

25) See also Edward R. Beauchamp, Akira Iriye, eds., *Foreign Employees in Nineteenth-Century Japa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H. J. Jones, *Live machines: hired foreigners and Meiji Japa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0).

26) Bird, *Japan*, I, 10.

27) Bird, *Japan*, II, 202-204, 233.

28) Bird, *Japan*, I, 9.

“The extraordinary progress which the Empire has made justly claims our admiration, and, judging from the character of the men who take the lead in public affairs, and from the wisdom and sobriety which they have gained from ten years of experience, we may reasonably hope for the consolidation of reforms already inaugurated, and that those which are to come will be faithfully carried out with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classes, and with the honesty and solidity which alone can ensure permanent success.”²⁹⁾

The 1870s, when Bird visited Japan for the first time, indeed saw the climax of the country’s fascination for the West. Her second trip to East Asia in the mid-1890s allowed Bird to re-evaluate Japan’s performance after one and a half decade had passed. In the meantime, Japan had w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become a colonial power. This war gave rise to Bird’s perception of Japan as a potential threat. She formed her opinion on the basis of Japanese behaviour on the Asian mainland. When she heard about the murder of Korea’s Queen Min in 1895, Bird argued that “a heavier blow to Japanese prestige and position as the leader of civilisation in the East could not have been struck”.³⁰⁾ By 1899, Bird felt that Japan had “a corrupt people with a straight government,” a potentially frightening combination.³¹⁾ This partial disillusionment and loss of sympathy for the archipelago shows that learning processes were open-ended. The outcomes were unpredictable and could go in a – for Bird – negative direction.

The East Asian country Bird liked most was China. She visited the Yangtze valley up to the Tibetan territories in Sichuan. China

29) Bird, *Japan*, II, 347.

30) Bishop, *Korea*, II, 71.

31) Bishop, *Yangtze*, 533. In China, in contrast, “the people are straight, but officialism is corrupt.”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was the only country where Bird’s physical safety was in jeopardy, whereas Japan and Korea had been completely safe. Rioting mobs attacked Bird two times providing evidence of wide-spread anti-foreign feelings in China. Nevertheless, the language of her account cannot hide the strong fascination the British traveller felt for the Chinese Empire:

“Throughout the Yangtze valley, from the great cities of Hangchow and Hankow to the trading cities of SZE-CHUAN, the traveller receives very definite impressions of the completeness of Chinese social and commercial organisation, the skill and carefulness of cultivation, the clever adaptation of means to ends – the existence of local patriotism, or, perhaps, more truly, of local public spirit, of the general prosperity, and of the backbone, power of combination, resourcefulness, and independence possessed by the race.”³²⁾

With this list of positive attributes, Bird told her readers that China was a country with a sophisticated and basically intact social structure. She repeated several times that the Chinese civilisation “is not decayed, [...] and has many claims to our respect and even admiration.”³³⁾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was one new element in Chinese history according to Bird: “the FOREIGNER.”³⁴⁾ Although political reform was less pronounced in China than in Japan, Bird saw “indications for reform from within”.³⁵⁾ She harshly criticised those Europeans who promoted a bullying stance against China and wanted to impose their own patterns by force. Against such opinions, Bird argued that “irresistible forces are beginning to drive China out of

32) Bishop, *Yangtze*, 13.

33) Bishop, *Yangtze*, 11.

34) Bishop, *Yangtze*, 537. Capitals in the original.

35) Bishop, *Yangtze*, 538.

her conceit and seclusion.”³⁶⁾ Bird illustrated these “inner changes” with the dynamism of the Chinese economy. She observed, for example, that in a city as Hankou British businesses were not able anymore to compete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³⁷⁾ Furthermore, the demand for translations of foreign books was high. The literati class eagerly consumed these publications. These indications convinced her that Chinese would appropriate foreign knowledge for their own benefit. With the “Western leaven working”, Bird saw China “at the dawn of a new era.”³⁸⁾ She even saw the day coming when the Chinese would outperform the Europeans:

“It is not an effete or decaying people we shall have to meet in serious competition when it shall have learned our sciences and some of our method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deed, it is not improbable that chemistry, for instance, might be eagerly adopted by so ingenious a race to the perpetration of new and hitherto unthought-of frauds! But if the extraordinary energy, adaptability, and industry of the Chinese may be regarded from one point of view as the ‘Yellow Peril’, surely looked at from another they constitute the Yellow Hope, and it may be possible that an empire genuinely Christianised, but not denationalised, may yet be the dominant power in Eastern Asia.”³⁹⁾

This quote underlines the central role that learning processes played for Bird. However, she feared that learning processes could potentially lead to unwelcome outcomes, as her example of chemistry demonstrates. Chemistry can be used in beneficial, but also potentially harmful ways, as demonstrated by Japan’s eventual use of imported knowledge for atrocities – the murder of Queen Min

36) Bishop, *Yangtze*, 542.

37) Bishop, *Yangtze*, 64.

38) Bishop, *Yangtze*, 544.

39) Bishop, *Yangtze*, 13.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on the Asian mainland. This testifies to the ambiguity of intercultural learning processes. Only nuances separated the threatening “yellow peril” from the “yellow hope”. But eventually her account was intrinsically forward-looking, stressing the potentials and opportunities. Bird was convinced that China would sooner or later start a thorough process of adopting foreign knowledge, a process that would be highly beneficial for the country.

Bird’s outlook on the third East Asian country was decisively more negative. Korea, in her eyes, was East Asia’s most problematic country. It lacked Japan’s eagerness for reforms and China’s buzzing economic life. She stated:

“It is into this archaic condition of things, this unspeakable grooviness, this irredeemable, unreformed Orientalism, this parody of China without the robustness of race which helps to hold China together, that the ferment of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and this feeblest of independent kingdoms, rudely shaken out of her sleep of centuries half frightened and wholly dazed, finds herself confronted with an array of powerful, ambitious, aggressive, and not always over-scrupulous powers, bent, it may be, overreaching her and each other, forcing her into new paths, ringing with rude hands the knell of time-honoured custom, clamouring for concessions, and bewildering her with reforms, suggestions, and panaceas, of which she sees neither the meaning nor the necessity.”⁴⁰⁾

The quote shows that, according to Bird, reforms were not on their way and that, due to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 agency of foreigners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context. As a result of the Treaty of Shimonoseki, Bird argued, Korea “has received from Japan a gift of independence which she knows not how

40) Bishop, *Korea*, I, 14–15.

to use”.⁴¹⁾ That is why, in Bird’s opinion, Korea was “incapable of standing alone”.⁴²⁾ Bird therefore preferred reforms to be “carried out under firm and capable foreign supervision.”⁴³⁾ The lack of Korean agency or dynamism convinced her that foreign intervention, if benevolent, was admissible.

Bird’s view, however, did not incorporate a racial determinism that would regard Koreans as incapable of change. Her prove of the Koreans’ ability to adopt to new situations was her trip to the Korean communities in far eastern Russia.⁴⁴⁾ Korean emigrants to the Russian territories confirmed Bird’s opinion that Koreans could become enterprising and develop – as she expressed it – an “independence and manliness of manner rather British than Asiatic.”⁴⁵⁾ Despite the corruption and inapt social structures which Bird observed in Korea, she insisted on the Koreans’ ability to learn and to adopt to new circumstances. Korea’s “resources are undeveloped”, the country’s “capacities [are] scarcely exploited” and “the energies of her people lie dormant”, she argued, implying that foreign knowledge could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country’s resources.⁴⁶⁾ The reforms carried out in Seoul in 1897 which led to crucial improvements of the capital’s material infrastructures also contributed to a positive outlook.⁴⁷⁾ But contrary to Japan and China, once again, she suggested that reforms should be supervised by foreigners. In the case of Korea, foreign imperialists – and not Koreans themselves – would be the main agents of change. This understanding reflects

41) Bishop, *Korea*, II, 294.

42) Bishop, *Korea*, II, 277. The British consul in Seoul Walter C. Hillier who contributed a preface to Bird’s volume blatantly stated that a “condition of tutelage [...] is now absolutely necessary for Korea to her existence as a nation”. See Walter C. Hillier, “Preface,” Bishop, *Korea*, I, vi.

43) Bishop, *Korea*, II, 282.

44) Byung-yool Ban, “Korean E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1860s-1910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9(1996), 115-143.

45) Bishop, *Korea*, II, 17.

46) Bishop, *Korea*, II, 278.

47) Bishop, *Korea*, II, 255-276.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the real and perceived diversity of the East Asian countries.

Coming from a clerical family background, Bird cultivated a close relationship to British missionaries in East Asia. In most treaty ports she stayed in missionary homes and discussed religious issues with her hosts. Three observations have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role Bird attributed to Christianity in East Asia. Firstly, Bird propagated a thorough Christianization of the East Asian societies. She saw East Asian religions as superficial and stuck in formalism and superstition.⁴⁸⁾ Interestingly, the mission processes worked exactly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n the other changes. Not Asians appropriated cultural assets from abroad, but European religious leaders tried to impose their outlooks upon the local populations. Secondly, however, Bird urged that Christianity should be adopted to the national conditions of the East Asian societies. She called this a nationalisation of Christianity. On a chapter on Protestant missions in China Bird suggested that China has to be Christianised. This, however,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Chinese themselves.⁴⁹⁾ Bird in this context criticized missionaries who did not respect East Asian customs and manners. Thirdly, what if change does not go in the direction outlined by Bird? The impact of Christianity remained limited in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The outlook that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 might not lead to Christianization was potentially frightening for Bird. This confirms the openness of globalization processes. A non-Christian model of modernity still seemed difficult to accept for Bird. However, such a genuinely East Asian form of modernity was in the making. Bird recognised that changes in East Asia would not lead to Westernization, that is a wholesale transmission of European models. Instead, she foresaw that something new, genuinely East Asian forms of

48) See for example Bishop, *Yangtze*, 524: “There is no resurrection power in any [of the East Asian religions].”

49) Bishop, *Yangtze*, 518-529.

modernity, would emerge.⁵⁰⁾

As shown above, Bird wrote during the historically short period when Europe outperformed Asia. She presupposed that, for promoting “inner changes”, East Asian actors would refer to “Western” models, especially models of her own home society. She interpreted other society’s reference to European cultural assets in they way that these societies accepted her own culture. Such an arrangement involved an occasionally paternalistic perspective. Bird belonged to an imperial society and was proud of its presence in the world.⁵¹⁾ In the economic realm, a belief in the beneficial contribution of free trade capitalism was inherent in Bird’s ideas. In the religious realm, Bird was convinced of the superiority of Protestantism. As her occasional appeals to British power prove, pride in Britain’s achievements as a colonial power was also a key component of Bird’s worldview. This could make here overlook the violence with which Britain and the other colonial powers fought for their interests. Bird criticized, for example, the murder of Queen Min by the Japanese, but British agents proceeded in similar ways throughout the world. It should furthermore be mentioned that a thorough transformation of people’s lives and practices was not specific to East Asia. Right in the European industrial centres of capitalist activity similar processes took place. Bird herself had published one book on the poor classes of Edinburgh where people lived in miserable conditions which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of East Asian peasants.⁵²⁾

50) This resembles Shmuel Eisenstadt’s concept of multiple modernities. See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129(2000), 1-29.

51) I use the term “imperial society” (*société impériale*) in the sense that Christophe Charle conceptualized in Christophe Charle, *La Crise des sociétés impériales: Allemagne, France, Grande-Bretagne, 1900-1940. Essai d’histoire sociale comparée* (Paris: Seuil, 2001).

52) Isabella Bird, *Notes on Old Edinburgh* (Edinburgh: Edmonston and Douglas, 1869).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Beyond Bird's British, bourgeois and Protestant positionality, most striking is her belief in the capacities of the East Asian societies to adopt to new circumstances. Bird argued that not outside forces were crucial in the transformation of Japan and China. Instead, the Japanese and Chinese themselves profoundly transformed their own country as a consequence of the reinforced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is process the Japanese and Chinese decision makers consciously and systematically appropriated foreign knowledge. That is what Bird called “inner reforms” or “nationalisation” of modernity. These changes were orchestrated by Japanese, Korean or Chinese actors and correspond to the needs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text. Bird recognised that these “inner changes” were the only way to institutionalise reforms in an efficient and lasting way. Only exceptionally, as in the case of Korea, where she did not see the required drive for reform, did she approve of foreign intervention. She regarded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societies as a potentially open-ended process. Moreover, in Bird's eyes, no biological determinism limited the agency of East Asian actors.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East Asia was now integrated into the circuits of global flows. It was henceforth up to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to make something out of it. According to Bird, they had good chances to succeed in this undertaking.

III. Historiographical Views on Globalization in the Early and Late Twentieth Century

The idea that non-European societies appropriate foreign knowledge did not only appear in popular travel writing. Around 1900, historians as well started to think about global interconnectedness. In particular, Karl Lamprecht (1856–1915), historian and chair of mediaeval and modern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in Germany since 1891, reflected upon questions of interactions between societies. Lamprecht was a specialist of cultural and social history.

He was harshly attacked and thereupon marginalised within German academia as a consequence of the so-called methodological dispute (Methodenstreit) that opposed him to more conservative proponents of political history.⁵³⁾ In the following I want to present Lamprecht's embryonic conceptualization of global interactions. I also want to show how today's historians, building on ideas first formulated by Lamprecht, elaborated concepts that help us to understand phenomena of cultural transfers. These concepts allow us to empirically analyse Bird's "changes from within".

Although Lamprecht did not travel as frequently as Bird, it was also an intercontinental trip that shaped his thinking about global interactions. In 1904, Lamprecht crossed the Atlantic en route to the United States on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ts and Sciences organized as part of the Louisiana Purchase Exposition in St. Louis.⁵⁴⁾ In his travelogue Lamprecht reflected upon contemporary global interconnections. The same year 1904 also witnessed the Russo-Japanese War which often came up in Lamprecht's account as it offered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East Asia's place in world history.⁵⁵⁾

Lamprecht challenged the common belief in European superiority and postulated the equality of all world regions. After some centuries of European dominance in the world, he predicted a return to

53) Roger Chickering, *Karl Lamprecht: a German academic life* (1856-1915),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1993); Matthias Middell, *Weltgeschichtsschreibung im Zeitalter der Verfachlichung und Professionalisierung: das Leipziger Institut für Kultur- und Universalgeschichte 1890-1990* (Leipzig: Akademische Verlags-Anstalt, 2005).

54) A.W. Coats, "American Scholarship Comes of Age: The Louisiana Purchase Exposition 1904,"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2(1961), 404-417; Wolf Feuerhahn, "'(Euvrer pour l'unité de la connaissance humaine'. Le *Congress of Arts and Science* de Saint Louis (1904)," *Revue germanique internationale*, 12(2010), 139-157; Georg Kamphausen, *Die Erfindung Amerikas in der Kulturkritik der Generation von 1890* (Weilerswist: Velbrück, 2002).

55) Lamprecht, *Americana*, 5.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power, as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creatively appropriated innovations made elsewhere. The capacity to learn from abroad, he argued, was one of the crucial forces in history. Lamprecht saw that the key to an understanding of global history is to be found in an analysis of global interactions.⁵⁶⁾ At one point he argued that “exchanges between similar but not too closely related peoples have always been the most fruitful in world history.”⁵⁷⁾

Lamprecht’s stay in the United States comprised a series of five lectures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City.⁵⁸⁾ One of his lectures focused on interactions between societies and cultures beyond national histories. Lamprecht regarded processes when one society influenced another and lastingly changed the latter’s destiny as the most interesting phenomenon in history. He then suggested to analyse the paths and the media such influence had taken. From where to where took influence place? Who were the individuals or groups engaged in such processes? Which tools did they use? Lamprecht distinguished between the forced and voluntary quality of transmission processes which would largely condition the overall acceptance of changes. These two categories correspond to Bird’s categories of changes “from within” and “from without”. Lamprecht predicted that interactions between societies would be the dominant force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According to the German historian, those societies that can learn from abroad would be successful in the twentieth century. As a consequence of

56) Lamprecht, *Americana*, 3–8.

57) Lamprecht, *Americana*, 85.

58) Karl Lamprecht, *Moderne Geschichtswissenschaft: 5 Vorträge* (Freiburg im Breisgau: Heyfelder, 1905), 103–130. An extract can be found online: Karl Lamprecht, “Universalgeschichtliche Probleme. 1904/1905,” *Themenportal Europäische Geschichte*, 2006, <http://www.europa.clio-online.de/2006/Article=53>, retrieved 10 May 2013. See also Matthias Middell, “Weltgeschichte um 1900,” *Themenportal Europäische Geschichte*, 2007, <http://www.europa.clio-online.de/2007/Article=134>, retrieved 24 March 2013.

this insight, Lamprecht founded a center dedicated to comparative world and cultural history (Institut für Kultur- und Universalgeschichte)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in 1909.

Scholars did not take over Lamprecht's idea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t the end of the century, however, his ideas developed into the most innovative tools of historiography. From the 1980s onwards a group of French specialist of German culture headed by Michel Espagne and Michael Werner, started to develop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transferts culturels* in French, *Kulturtransfer* in German).⁵⁹⁾ In the 1990s the Leipzig historian Matthias Middell became the most prolific German scholar in further developing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studying the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the German kingdom of Saxony.⁶⁰⁾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provides historians with a tool to empirically analyse learning processes across borders. Transfer studies suggest to go beyond the "somehow magical category of influence".⁶¹⁾ The notion of influence emphasises the giving context, neglecting what actually happened in the receiving context. Scholars of cultural transfers argue that the receiving context determines transfer processes. This insight was crucial in understanding agency in transfer processes. Actors in the receiving context control transfer processes which usually fit to their own agendas. Moreover, the appropriation of foreign cultural elements is an active and creative process. Cultural transfers are therefore not mere "imitation". The question of authenticity does not even matter. "A

59) Michel Espagne, Michael Werner, eds., *Transferts. Les relations interculturelles dans l'espace franco-allemand (XVIIIe et XIXe siècles)*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a Civilisation, 1988).

60) Michel Espagne, Matthias Middell, eds., *Von der Elbe bis an die Seine. Kulturtransfer zwischen Sachsen und Frankreich im 18. und 19. Jahrhundert*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1993).

61) Michel Espagne, "Französisch-sächsischer Kulturtransfer im 18. und 19. Jahrhundert. Eine Problemskizze," *Comparativ*, 2, 1992, p. 100-121.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translation has no less legitimacy or originality than its model.” Misreadings and “erroneous” interpretations can even be highly productive in the new context.⁶²⁾

Scholars of cultural transfer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empirically traceable sociocultural conditions, that is the instances of mediation. On the one hand, mediators are human actors, often migrants, interpreters, scholars, intellectuals, individuals with experiences abroad etc.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 supports of transfer processes are also key objects of study, for example books, journals or world exhibitions. Such vehicles were, for example, the Iwakura Mission mentioned by Bird as aiming at “investigating western civilisation and transplanting its best results to Japanese soil”⁶³⁾ and the Chinese literati’s interest in translated foreign books.⁶⁴⁾

Cultural transfers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Firstly, actors become aware of a deficit in their own context. They perceive a certain backwardness of their own country. Secondly, they start to search for foreign model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overcome those deficits. Thirdly, actors engage in a translation process. Such a process involves the transfer of key foreign elements from one context to another through intensive contacts with foreign actors, the translation of books etc. Fourthly, the foreign elements are fully implemented into the receiving context and, after a certain while,

62) Michel Espagne, “Comparison and Transfer. A Question of Method,” Matthias Middell, Lluís Roura, eds., *Transnational Challenges to National History Writing* (Basingstok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36–53.

63) Bird, *Japan*, I, 9.

64) On the impact of the translation of foreign books in China see Mark Gamsa, “Cultural Translations and the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Books,” *Journal of World History*, 22(2011), 553–575;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 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are not perceived as foreign anymore.

In the European context, the study of cultural transfers has led to a re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s between France and Germany.⁶⁵⁾ One of the central insights was that German nationalism was full of French references despite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nations. On the other hand French nationalism had incorporated numerous German elements. France and Germany are similar countries that have many things in common. It has to be asked to which extent such a concept can also be applied to colonial or semi-colonial settings where power hierarchies were more pronounced. Empirical research on Southeast Asia, for example, has shown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provides innovates perspectives in this context.⁶⁶⁾ Also under colonial conditions actors struggled to import foreign knowledge for their own purposes, ironically often in order to resist the colonial power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acquired a high popularity, especially in the German context. It is a genuinely European forerunner of concepts that later gained prominence with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 history. Dipesh Chakrabarty's *Provincializing Europe* brought up key ideas that are familiar to those acquainted to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⁶⁷⁾ The study of cultural transfer is one of the methods of global and transnational history.⁶⁸⁾ This field of history tries to make sense of global inter-

65) Michel Espagne, *Les transferts culturels franco-allemands* (Paris: PUF, 1999).

66) Harald Fischer-Tiné, ed., *Handeln und Verhandeln. Kolonialismus, transkulturelle Prozesse und Handlungskompetenz* (Münster: Lit-Verlag, 2002).

67)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68) Matthias Middell, "Kulturtransfer und transnationale Geschichte," Matthias Middell, ed., *Dimensionen der Kultur- und Gesellschaftsgeschichte: Festschrift für Hannes Siegrist zum 60. Geburtstag*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2007), 49-72.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connectedness just at a moment,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when the world once again experiences a wave of globalization.⁶⁹⁾

Today’s research in global and transnational history was able to fine-tune and prove some of Lamprecht’s ideas of 1904.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allows to empirically explain how “the Western leaven” has triggered changes “from within” in the East Asian societies. For example, the idea of the nation took a similar shape in East Asia as in Europe.⁷⁰⁾ As Andre Schmid has shown, the constitution of Korean nationalism was conditioned by the appropriation of some and rejection of other foreign elements, by an engagement with a global context.⁷¹⁾ With regard to Korea’s discussion of foreign literary works, Ryu Shi-hyun has suggested the notion of “multiply-translated modernity”.⁷²⁾ The importation of concepts as “love” or “civilization” to Korea happened through the discussion of European models.⁷³⁾ The emergence of new model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are both emanations from Korean traditions and appropriations of for-

69) Dominic Sachsenmaier, *Global Perspectives on Global History: Theories and Approaches in a Connecte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70) Anne-Marie Thiesse, *La création des identités nationales: Europe XVIIIe-XXe siècle* (Paris: Seuil, 1999).

71)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72) Si-hyun Ryu, “Multiply-Translated Modernity in Korea: Samuel Smiles’ *Self-Help* and its Japanese and Korean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6(2011), 153-180.

73) Jungwoon Choi, “Importation of Love from Modern Europe to Korea,” Jörg Feuchter, Friedhelm Hoffmann, Bee Yun, eds.,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Frankfurt am Main & New York: Campus, 2011), 299-312; Young-sun Ha, “The Global Diffus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Civilisation to Nineteenth-Century Korea,” Jörg Feuchter, Friedhelm Hoffmann, Bee Yun, eds.,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Frankfurt am Main & New York: Campus, 2011), 283-298.

eign models.⁷⁴⁾ Many other examples of inspiring scholarship could be mentioned.

IV. Conclusion

Was Bird a theorist of globalization? Of course, the British lady traveller who was fascinated by Japan, Korea and China did not present a consistent theory or concept of global change. However, her observations present the transformations which were going on in East Asi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 an intelligent way. She experienced, observed and described changes in East Asia which can anachronistically be referred to as globalization. Bird tried to present her readers with an interpretative framework that made sense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presented a possibly curious connection between Isabella Bird, Karl Lamprecht and those historians who today use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What brings these authors together is their emphasis on agency in transformation processes. According to them, not imperial inroads put forward globalization, but creative appropriation processes carried out by local actors. Of course, the context of imperialism shaped a structural condition that limited the agency of local actors. But to disregard these actors would mean to deny Japanese, Korean or Chinese agency. In consequence, one of the central matters historians can study in East Asia are not necessarily phenomena of imperial domination, but how Chinese, Korean or Japanese actors creatively, even under unfavourable conditions, appropriated foreign elements into their own contexts and put for-

74)Hyaeweol Choi, “‘Wise Mother, Good Wife’: A Trans-cultural Discursive Construct in Modern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14(2009), 1-34; Vladimir Tikhonov, “Masculinizing the Nation: Gender Ideologies in Traditional Korea and in the 1890s-1900s Korean Enlightenment Discourse,” *Journal of Asian Studies*, 66(2007), 10291065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ward the complex and ambivalent process of globalization.⁷⁵⁾

고려대학교, ragazzodelleuropa@hotmail.com

75) Transfer processes did not only take place on a one-way road from West to East. Around 1900, East Asia started to be a model for Europeans. In 1904, Henry Dyer, former president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Kōbu daigakkō*) in Tokyo, urged his British countrymen to emulate Japan in order to stop the perceived British decline. See Henry Dyer, *Dai Nippon. The Britain of the East* (London: Blackie & Son, 1904), 425-426.

<초록>

“서양의 낙엽으로 물들었다”: 동아시아의 세계화에 관한 영국인 여성여행가 이사벨라 버드의 생각을 중심으로

크라우스 디트리히

본 연구는 영국인 여성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의 동아시아 여행을 새롭게 조망했다. 비숍은 1878년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1890년대 중반 한국, 중국, 동부 러시아 지역을 차례로 여행하였다. 비숍의 저작은 19세기 후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그는 동아시아 사회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된 결과,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관찰하였다. 다른 동시대의 저자들과는 달리, 비숍은 제국주의가 변화의 추동력이 아님을 지적했다. 동아시아 사회들 스스로 새로운 지식(foreign knowledge)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취했다고 파악했다.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비숍의 접근은 독일 역사학자 칼 램프레히트(Karl Lamprecht, 1856-1915)와 비교할 수 있다. 램프레히트는 해외의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이 20세기에 국가의 흥망에 결정적인 것이 되리라 주장하였던 인물이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래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전해 온 문화전파(cultural transfers) 개념을 도입하였다. 문화전파는 초국가적 학습 과정(transnational learning processes)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비숍과 램프레히트 및 문화전파를 연구하였던 역사학자들은 모두 그들의 설명 모델이 수용 맥락의 중개자(agency)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 : 이사벨라 버드 비숍 ; 여행기 ; 칼 램프레히트 ; 세계화 ; 문화전이(transferts culturels), 세계사 주체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Abstract>

“The Western Leaven has Fallen” –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as a Thinker on Globalization in East Asia

Klaus Dittrich

This paper sheds new light on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s (1831–1904) trips to East Asia. Bird visited Japan in 1878. Subsequently she came to Korea, China and far eastern Russia in the mid-1890s. It is argued that her publications provide a unique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ird observed how the East Asian societies were subject to major transformations as a consequence of their integration into the system of global capitalism. Contrary to other contemporary authors, however, Bird pointed out that imperialism was not the driving force of change. Instead, she saw the East Asian societies themselves engaged in efforts of transformation through the active importation of foreign knowledge. Bird's approach of understanding global change is then compared to the German historian Karl Lamprecht (1856–1915) who argued that the capacity to learn from abroad would be decisive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article then introduces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fers which has been developed in a Franco-German context since the 1980s and which provides a methodological tool to empirically analyse transnational learning processes. Bird, Lamprecht and the historian who study cultural transfers have in common that their explanatory models focus on the agency of the receiving context.

Keywords: Isabella Bird Bishop; travel writing; Karl Lamprecht; globalization; cultural transfers; agency in global history.

■ 논문 ■

Mass Dictatorship and Transnational History: “Exploring the Conceptual Basis for the Connection”¹⁾

하영준

I. Post-dictatorial situation as the problematic

In this paper, I treat the mass dictatorship project as a transnational history of Twentieth-Century dictatorship. For almost ten years since 2002, the mass dictatorship project has involved more than 50 researchers per year, but ‘mass dictatorship’ is still not sufficiently known in global historical academia.²⁾ Contrarily, transnational history is often being mentioned around the globe as a new current,

- 1) 이 논문은 2012년 4월 11~14일에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준최한 European Social Science History Conference(ESSHC)의 “Transnational Humanities: Possibilities and Prospects” 세션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2) The mass dictatorship project was inspired by a scholarly shift from the conception of ‘dictatorship from above’ to ‘dictatorship from below.’ It addresses the (self-) mobilization of ‘the mass’ in and for twentieth-century dictatorships: the pre-World War II dictatorship (for example, Fascism, Nazism, Stalinism and Japanese colonialism) and post-World War II dictatorial regimes as well, including communist and post-colonial versions of ‘development dictatorships in Europe, Asia, and Africa. Building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RICH) at Hanyang University in Korea between 2003 and 2008, the first volume of a series on mass dictatorship was published in the title of *Gender Politics and Mass Dictatorship: Global Perspectives*(Palgrave Macmillan, 2011). The others will be published in the titles of ‘*Mass Dictatorship and Modernity*, ‘*Everyday Life in Mass Dictatorship: Desire and Delusion*’ and ‘*Mass Dictatorship as the Ever-Present Pass*.’ In this paper, I focus on books and papers by Jie-Hyun Lim, series editor of them and director of RICH.

but does seem to have different mode. Different, even conflicting approaches have been making claims for 'the transnational' and competing with each other. To talk about the concept of mass dictatorship in connection with transnational history, therefore requires chasing two hares at once, those of unfamiliarity and ambiguity. Despite such difficulty, seeking to explore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 meaningful enterprise, because both are born out of efforts to liberate our imaginations bound to the nation-state paradigm. I want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idea of mass dictatorship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discussing mass dictatorship, I also try to suggest a post-colonial approach to transnational history.

The mass dictatorship research project is based on the memory war in democratized Korea over the past dictatorship.³⁾ Who the tentative winners of this unfinished war are is evidenced by the opening of a memorial hall for late dictator, Park Chung Hee on February 21 of this year. Although about 100 members of pro-democracy activists were gathered in front of the hall, built for as much as 70 billion Korean won (60 million US dollars), shouting "Memorial hall for what?" "Park's legacy is something that should vanish, not memorialized," their voices were utterly lacking in resonance. In various public opinion surveys on Korean presidents, Park has consistently been the top choice.⁴⁾ Park's eldest daughter, Park Geun-hye,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n 19 December 2012 with the approval of 51.6% of Korean voters, by assuming the title of her father's successor. She had been often criticized for being the "daughter of a dictator Park Chung Hee. But a national-level poll conducted

3) Jie-Hyun Lim, "Mass Dictatorship Thesis," in Jie-Hyun Lim and Yong-Woo Kim eds., *Mass Dictatorship II: Political Religion and Hegemony* (Korean) (Seoul: Chaiksesang, 2005), 613-615; Jie-Hyun Lim, "Series Introduction: Mapping Mass Dictatorship: Towards a Transnational History of Twentieth-Century Dictatorship," in *Gender Politics and Mass Dictatorship*, 1-2.

4) He took first place in a survey taken in 2009 as the president who has made the most contribution to Korean development with 75.5%, also in a 2010 survey as the most trustworthy president with 34.2% and again in 2011 as the favorite president of all time with 31.9%.

in July 2012 by a conservative newspaper reported that 59.2% of participants responded they did not believe Park was a “daughter of a dictator” while 35.5% agreed with the characterization.⁵⁾ The paradox of such strong nostalgia for dictatorship in a democratized society is not at all unique to Korea. It is a common phenomenon in countries with the experience of leftist or rightist dictatorships in the 20th century. Perplexing as this widespread nostalgia for dictatorship may be, it shows the limitations of emphasizing the brutality of dictatorship versu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The pro-democracy forces in Korea have claimed that the Park's regime was a system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dictatorship and ruined Korea's chances for autonomous modernization. If one takes this stance, Park's popularity is nothing more than ‘anachronistic nostalgia’ resulting from dissatisfaction with today's politics and economic troubles. But the Park era is remembered by most Koreans not as a deviation or aberration from modernity but rather as an inevitable stage in an underdeveloped country's advance to modernization, in other words, a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for democratization.’⁶⁾ The pro-democracy forces is being put on the defensive in the memory war over the Park era owes much to its overlooking the modern and national aspects of dictatorship. They, critical as may be of Park's dictatorship, can in fact reinforce the chauvinist mentalities in their aspirations for a proper strong

5) “안철수 지지기반 30, 40대서 지지율 뚝...왜?” Donga Ilbo article (Korean) 16, July 2012.

6)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ef mobilizing mechanism under Park's dictatorship such as the Saemaeul (New Community) Movement is being celebrated as a means to modernization, reforming the minds of the masses and fostering a national consciousness. An article in a newspaper dealing with the 2010 earthquake catastrophe in Haiti is a good example of this kind of remembrance by the masses. Describing the catastrophe as a typical case of a third world country, it asks: “The core of the problem is how to awaken the people's consciousness buried for a long time in the habitual routine of poverty and help them regain hope.” The solution offered by the article is the Saemaeul Movement led by Park's regime during his dictatorship. “If the Saemaeul Movement was about reforming people's minds and giving them back their dreams, it might be exactly what these people need.” Chosun Ilbo (Korean), 13, April, 2010.

state. The awareness that there is no proper state for people and that wanting one is a problem in itself was nowhere to be found. The problem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regarding anti-North spies demonstrates this point well.⁷⁾ Such is the problematic situation created by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w and system, in which the masses are ever more strongly incorporated into the nation and the state.

Mass dictatorship as a working hypothesis originated in these post-dictatorial situations as the problematic emerged after Korea's democratization. It is not about justifying dictatorship 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modernization. It is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violent nature and the mechanism behind modernization and nationalization endlessly reproducing the desire of the masses for dictatorship. The Idea of mass dictatorship centers on dictatorship as a 'normal exception' of a nation-state. It takes the 'exception' of dictatorships as a prism through which the 'normality' of the nation-state system is revealed as a product of violence and oppression. In other words, the mass dictatorship project is an attempt to

7) Between 1952 and 1972, under the North-South confrontation, Park's regime had soldiers and civilians infiltrate the North as spies, a fact which was unspoken then and for a long time to come. The existence of around 8,000 who died or became missing in action and countless others who were wounded in anti-North spy missions went unrecognized; some of them were even put to death after their cases were fabricated as anti-South spy incidents.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re able to have their voices heard for the first time in 2004, 30 years after the fact. But the cultural politics of remembering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y were scapegoats for the lack of a proper strong state. There was no fundamental criticism or reflection about the violence which mercilessly destroyed the lives of individuals in the name of the state and the nation. The victims of state violence were turned into 'Korean Rambos' - national heroes who had made a 'special sacrifice for the state' - and were compensated in the service of 'fostering the patriotic spirit.' They ended up becoming extreme rightists, infamously known for committing disturbance and physical violence against leftist political parties. This is only one of numerous instance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going in the direction of further reinforcing nationalism. Such is the problematic situation created by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w and system, in which the masses are ever more strongly incorporated into the nation and the state.

grasp the workings of power by the nation-state, through getting to the bottom of the mechanisms of modern power and consent supporting the system of dictatorship. By dealing with these problems, it opens the door to think out the possibilities of a transnational history stimulating and developing critical imaginations regarding the nation-state system.⁸⁾

II. Mass-Dictatorship from within the Nation-State

A study of mass dictatorship does not lose sight of the persistent power of nation-states. Rather, it pays close attention to how the hegemonic order of nation-states is reinforced in 'the global age' through an 'antagonistic complicity of nationalisms' under which conflict exists hand in hand with mutual justification, as exemplified by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⁹⁾ In spite of, or rather because of this, the idea of mass dictatorship questions the hermeneutic preeminence that nations are fixed and timeless. In place of taking the nation as the framework within which one can study things (literature, histories, and so forth), the nation itself becomes a problematic to be studied. In this respect, a study of mass dictatorship should be understood as belonging to postcolonial transnational history, which argues that it belongs to genealogies of anti-imperial and decolonizing thought by analyzing against the naturalized frame of the nation.¹⁰⁾ It sets

8) Jie-Hyun Lim, "Mass Dictatorship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Mass Dictatorship II*, 586-587.

9) Jie Hyun Lim, "The Antagonistic Complicity of Nationalisms: On 'Nationalist Phenomenology'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Steffi Richtered., *Contested Views of a Common Past: Revisions of history in Contemporary East Asia*(New York: Campus, 2008).

10) A postcolonial-transnational perspective "makes the case for 'transnationalism' as a strategy for identifying the ideological work of the nation by offering a series of provocations derived from our own work about what might be seen as the self-evidently 'national.'" Laura Briggs, Gladys McCormick, and J. T. Way, "Transnationalism: A Category of Analysis," *American Quarterly*, 60-3(September, 2008), 637. Also see Micol Seigel, "Beyond Compare: Comparative Method after the Transnational turn," *Radical History Review*, 91 (Winter 2005), 63-65.

itself apart from transnational studies which take ‘transnational’ as a concept for explaining the new kinds of social relations and phenomena that have emerged since so-called ‘globalization.’¹¹⁾ Mass dictatorship as a transnational history reveals the modern power behind twentieth century dictatorships, seeing nations as imagined and constructed entities, or in the words of Joan Scott, a “primary way of signifying relationships of power.”¹²⁾

The idea of mass dictatorship starts from the simple thesis that modern dictatorship presupposes mass support, while pre-modern despotism does not need massive backing from below.¹³⁾ With the multitude (including workers) having entered the political scene, the modern state, whether democratic or dictatorial regime, could not ignore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and needed a social and political mechanism of mobilization. This mechanism encompassed forced as well as voluntary mobilization based on mass support and participation. Mass dictatorship was a historical appropriation of modern statecraft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Like other modern political systems, mass dictatorship legitimized itself through various legal, administrative, medical and cultural devices. Its sustainability depended on its ability to bring people to form an identity conforming to the subject model it had created and to involve them in the political ritual of legitimacy. It differed from other modern political systems in that it often adopted an extreme mode of ruling. Both fascism and Stalinism harbored an ambition to create a ‘new man’ through an anthropological revolution. Despite such extreme phenomena, mass dictatorship assum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tate system, transforming the chaotic crowd of ordinary people into a nation, a collective with a homogeneous identity and a unitary will.

11) For a brief criticism of Transnational Studies, see Kevin Grant, Philippa Levine and Frank Trentmann, *Beyond Sovereignty: Britain, Empire and Transnationalism, C. 1880–1950* (Palgrave, 2007), 4–13.

12) Joan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42.

13) Jie-Hyun Lim, ‘Mapping Mass Dictatorship’, in Jie-Hyun Lim and Yong-Woo Kim eds., *Mass Dictatorship I: Between Coercion and Consent* (Korean) Seoul: Chaiksesang, 2004, 26–36; “Series introduction,” 3.

Indicating the ways in which popular sovereignty and political religion function a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a study of mass dictatorship problematizes the liberal democracy that justified itself against the background of fascism and Stalinism.¹⁴⁾ The path

14) Jie-Hyun Lim, 'Mapping Mass Dictatorship,' 37-51; "Mass Dictatorship Thesis," 607-51; "Series introduction," 11-14. The intellectual history of popular sovereignty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mass dictatorship and the nation-state. Popular sovereignty transformed the multitude from passive subjects into active citizens and opened the way for modern participatory dictatorship. Sovereign dictatorship then eme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nation-state, based on the legacy of general will and popular sovereignty from the French Enlightenment. Endowed with the legislative right to make constitutions, the people were, in principle, not subject to the existing constitutions. Since the people had the power to enact new laws in their own name, they were able to legalize any illegitimate action. This is what Carl Schmitt refers to as 'sovereign dictatorship,' the logic behind his claim that the Nazi regime was based on a mass awakening and solidarity of a nation, and should not be seen as illegal or dictatorial because it was only advocating the will and desire of the people. Through a logical chain of representation whereby the people represent the multitude, the nation represents the people and the state represents the nation, popular sovereignty is turned into sovereign dictatorship. The predestined conclusion of sovereign dictatorship is thus revealed to be twentieth century mass dictatorship.

Nevertheless, an ideological justification of popular sovereignty is much too abstract to regulate everyday life through bio-power. For popular sovereignty to have effect in reality, an anthropo-cultural re-enchantment is called for. The answer to this demand is 'political religion,' which confers a sacred status on earthly entities like nation, class, and race, and turns them into absolute principles of collective identity. By transforming realistic politics into political religion, nationalism plays a key role in re-enchanting the masses. The nationalist narrative of a collective life flowing from the immemorial past into an infinite future can turn the mortal life of the individual into the eternal life of the collective. Out of this narrative shift comes a subject which pledges allegiance in body and soul to the eternal glory of the homeland and the nation. But political religion is not something that is peculiar to mass dictatorship. Its origins can be traced back to the term 'civil religion,' coined by Jean-Jacques Rousseau. Totalitarian political religion and democratic civil religion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of the nation-state's social and political engineering over the homogenous collectivity of the masses.

from one to the other does not seem to be very long, but it doesn't call for a justification of dictatorship by erasing difference from democracy. The key assertion here is that dictatorship is the darkest extreme of the nation-state, not a deviation or distortion from modernization. It can therefore be reasonably argued that liberating our political imagination from the nation-state is a prerequisite for changing the groundwork upon which mass nostalgia for dictatorship is being reproduced, and envisioning diverse possibilities for political life and community. It also offer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transnational tendencies that have emerged as Eurocentric responses to globalization: namely, multiculturalism and the European Union. Even though they seem to pass 'through' or go 'beyond' the boundaries of states, their power relations are actually expanded and reinforced.¹⁵⁾

By focusing on the power relations that produce national subjects,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never fails to illuminate the limitations of current tendencies, reproducing the nation-state paradigm under the rubric of 'the transnational.' But the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comparative method in studies of mass dictatorship is not bound by similar limitations. The three volumes of the Mass Dictatorship Series in Korean, and one volume in English published so far are each made up of a series introduction and separate chapters analyzing different dictatorships according to nation-state units, such as the Mussolini regime, the Franco regime, the Stalinist regime and the Park regime. These volumes have problematized the n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research while suggesting the

15) Multiculturalism in the US, Canada, Australia and others that claim to recognize and advocate the cultural diversity of members of a state serves to induce national loyalty with the least amount of resistance and reinforce nationalism in the name of 'transnational.' The EU is not exempt from the charge that it is no more than an expansion of existing borders of nation-states into a civilizational divide between Europe and non-Europ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 transnational historiography aspiring to an 'integrated European history' contributes to the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uslims within the area." Jie-Hyun Lim, "Transnational Humanities: What is not to be done?" keynote speech for the conference of Graduate Program in Transnational Humanities (September 25, 2009).

nation as a self-contained analytical unit for mutual comparison on a larger scale. Bringing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ations, comparative research participates in the construction of broader categories. MicolSeigel argues for treating comparative research not as a methodological model, but rather as a subject of transnational history, for it is important to explore how comparative studies contribute to producing the very notions, subjects, and experiences of national difference.¹⁶⁾

The second question, closely related to the first, is how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cy outside of the modern/pre-modern or normal/abnormal binary. The concept of mass dictatorship is a useful tool for showing that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both being products of modernity and sharing much of the modern power devic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and political religion. But as pointed out by a critic, even if all nation-states possess the potential for sovereign dictatorship, there is still the question of when the moment is that it becomes realized. In other words, how to rethink and re-situate dictatorship and democracy within modernity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Needless to say, one should be watchful of being pulled back into the nation-state paradigm by taking the nation as a self-contained unit. It is imperative that dictatorship and democracy be rethought in connection to relations, encounters and interactions across na-

16)MicolSeigel, "Beyond Compare,"65-58.For the tensions comparative history and transnational history, see Heinz-Gerhard Haupt and JürgenKocka eds.,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History: Central European Approaches and New Perspectives*(New York: Berghahn Books, 2009).

tions.¹⁷⁾

III. Mass Dictatorship, Through or Beyond the Nation-State

In attempt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a study of mass dictatorship turns to colonialism and imperialism for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cy. This approach is a hypothetical adaptation of the ‘boomerang thesis’ put forward by Hannah Arendt. She claims that racist theories, non-democratic political assumption (rule by decree and enforcement by bureaucracy), and violent practices like forced popular transfers and proto-genocidal massacres that were used to legitimize colonial rule had a wide-ranging influence on European political and intellectual cultures and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totalitarian regimes to emerge in Europe.¹⁸⁾ Her claim offers the possibility for a new approach to Nazism and the Holocaust, away from a Euro-centric and asymmetrical framework of comparative research; the idea of a German *Sonderweg* (“special path”).

But there is an obstacle to appropriating Arendt’s boomerang thesis: why did Nazism and the Holocaust appear in Germany, where colonies had hardly existed, and while the two largest empires of Britain and France were able to maintain democratic institutions

17) For example, C. L. R. James provides a multifaceted account of the connections between nations, metropole and colony. This dynamic sense of interconnection between the slave revolt in Saint-Domingue and the French Revolution is integral to the structure of the book, with the fourth and fifth chapters respectively titled the ‘San Domingo Masses Begin’ and the ‘Paris Masses Complete.’ This disrupts an imaginative geography whereby political activity is situated in the nation as a self-contained analytical unit. James’s book offers important resources for rethinking about ‘relations across space’ that focus on the mutually constitutive nature of West-non-West interactions.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9).

18) Richard H. King and Dan Stone eds., *Hannah Arendt and the Uses of History: Imperialism, Nation, Race, and Genocide* (New York: Berghahn Books, 2007), 2-10,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Cleveland, 1958).

and political culture? An easy answer to this question would rely on positing a historical connectivity between German colonialism and the Holocaust, but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refrains from such a linear continuum that reduces the Holocaust to pre-modern Germany's historical exception as a latecomer to the colonial situations. It argues that the historical links behind the Holocaust can be revealed by taking a close look at the modern mechanisms of ideologies and institutions behind incidents of genocide in European colonies.¹⁹⁾

The 'categorical murders' of European colonialism provided the epistemological and cultural ground for the Nazis to come up with the idea of genocide. That is to say, if the thought of annihilating an entire ethnic group based on a certain categorization, or if the act of putting that thought into practice had not previously taken place in the colonies, the Holocaust would not even have been imaginable. 'Categorization' is a concept borrowed from Zygmunt Bauman, who used it as a tool for explaining the Holocaust under the Nazi regime.²⁰⁾ A disregard for the individual diversity of adults, children, men and women and the belief that people can be reduced to components of abstract categories such as class, race and nation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modernity.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emphasizes that the modern thinking of categorization has functioned a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colonial genocide and the Holocaust. Through a deliberate categorization, minorities were constructed as others in ethnicity, race or class and degraded to objects to be controlled by violence, even eliminated. Whatever formal differences there may be between massacres, genocide, and the Holocaust, they are all 'categorical murders' of others in their

19)Jie-Hyun Lim, "Modern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in *Reading dictatorship on the verge of modernity* (Korean) Seoul: Green Bee, 2006, 46-62; "Series introduction," 3-11.

20)Jie-Hyun Lim, "From Banality of Evil to Rationality of Evil: An interview with Zygmunt Bauman." (Korean) *Contemporary Criticism*, 22 (Spring, 2003), 12-32, Sophia Marshman, "Bauman on Genocide - Modernity and Mass Murder: From Classification to Annihilation?" by Michael HviidJacobsen and PoulPoder eds., *The sociology of ZygmuntBauman : challenges and critique* (Ashgate, 2008), 75-94.

abstract state.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suggests that not only the Holocaust under Nazism but also democracy in Britain and France can be explained in connection by ruthless colonial violence. Britain and France categorized the colonial subordinate people as ‘others’ to establish their own national identities and committed categorical murders against them as well.²¹⁾ For black diaspora intellectuals, the links between European colonialism and fascism were all too obvious and brutal racist violence was not exclusive to fascism.²²⁾ In 1938, George Padmore called the British colonial regime in the West Indies “colonial fascism,” and C.L.R. James also said, “To the vast body of Africans in Africa such a distinction (between the Fascist and the democratic imperialism) is meaningless.”²³⁾ Britain tried to integrate its people by categorizing itself as a superior ruler, while identifying the colonized as inferior beings. National

21) Jie-Hyun Lim, “Modern Origins,” 57-62; “Series Introduction,” 6, Sangsoo Kim, “Little Prefects: The Embodiment of Masculinity in Interwar Britain,” in *Gender Politics and Mass Dictatorship*, 85-88.

22) African-American intellectuals also were aware of the link between colonialism and racism in the US. Recently, Malini Johar Schueller has argued that the symbiosis of imperialism and racism in the responses to hurricane Katrina points out that, “simultaneous with representations of African American degradation were scores of references to Katrina as similar to the third world; fighting in Iraq and battling in Katrina seemed eerily alike as Katrina was declared a ‘war zone’; most ominously, Louisiana Governor Kathleen Blanco pegged New Orleans as enemy territory, a city needing colonial occupation, when she said, ‘These troops are fresh back from Iraq, well trained, experienced, battle-tested and under my orders to restore order in the streets.’ In Blanco’s vision, citizens in need became irascible law-and-order problems, just like unruly denizens of a colony... Rather, they attest to a violent synergy of imperialism and racism as New Orleans, the colony within, is literally subdued by armies controlling the reaches of empire in occupied Iraq, a suggestion decisively made by Spike Lee when he posed before a ravaged New Orleans house tagged “Baghdad” during the shooting of *When the Levees Broke* (2006),” Malini Johar Schueller, *Locating Race: Global Sites of Post-Colonial Citizenship* (SUNY Press, 2009), 2.

23) George Padmore, “fascism in the Colonies,” *Controversy*, Vol. 2, No. 17, February 1938, C. L. R. James, *A History of Pan-African Revolt*, Washington D. C.: Drum and Spear Press, 1969, 99.

pride in being the ruler led British people to turn a blind eye to internal problems such as class conflict and gender inequality. It was through this type of imperialism that Britain was able to avoid developing into a system of dictatorship and maintain its liberal democratic institutes and political culture. Contrarily, the totalitarian regimes of Germany and Italy applied, in the words of Pascal Grosse, “colonialism without colony” to themselves and Europe.

While European colonialism took its civilizing mission outside of Europe, totalitarian regimes tried to accomplish it within Europe, against the non-nationals within their nations. This was interpreted as treating Europeans as Africans, leading to a strong resistance against, and later, banishing of totalitarian violence in Europe as non-European and pre-modern. Therefore AiméCésaire condemned Europeans as complicit in Nazism as, “they tolerated Nazism before it was inflicted on them: they have cultivated that Nazism...because, until then, it had only been applied to non-European peoples.”²⁴⁾ For Europeans, the real crime of fascism was the application to white people of colonial procedures, “which until then had been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Arabs of Algeria, the ‘coolies’ of India, and the ‘niggers’ of Africa.”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argues that the German *Sonderweg* thesis is a Euro-centric historiography, according to which liberal democracy is representative of modern universality, while Nazism and the Holocaust belong to the ‘particular’ and ‘abnormal’ nature of the German developmental process. Its point is that *Sonderweg* is a term used to justify the claim that Western modernity would never have led to such atrocities. But the perception of mass dictatorship as something abnormal and non-Western is as much a Euro-centric product as mass dictatorship is a product of European colonialism.²⁵⁾ Therefore, without a thorough examination of Western modernity itself, Europeans shedding tears over the Holocaust are likely to remain impassive to their countries’ colonial mas-

24) AiméCésaire, Joan Pinkham trans., *Discourse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36.

25) Jie-Hyun Lim, “Modern Origins,” 31-46; “Series Introduction,” 3-4.

sacres and incapable of discerning the contradictions of reality. A study of mass dictatorship focuses on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forgotten memories of European colonialism and mass dictatorship in order to break away from Euro-centric historical narratives and to fundamentally rethink the violence of Western modernity.

In Euro-centric historical narratives, nation-states are described as appearing in the Wes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gradually expanding throughout the world and becoming a universal norm, while colonies are treated as external and secondary questions.²⁶⁾ Although Weberian historical sociologists pay attention to the emergence of nation-states out of international militaristic competitions, explaining the violent nature of the state, it is just as dismiss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metropole and colonies. Nevertheless, recent historical studies on colonies show that modern power devices corresponding to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were tested and developed within the colonies before being exported to the metropolitan states and greatly affected postcolonial state formation.²⁷⁾ Also, the new imperial histories indicate that the national identities of the metropole were constantly reconstructed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with the colonies and suggest a need for the imperial history beyond the framework of national history.²⁸⁾ Rather than simply reversing Euro-centric historical narratives and

26) Gurminder K. Bhambra, *Rethinking Modernity: Postcolonialism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Palgrave Macmillan, 2007), 116-118.

27) Prakash, for example, argues that it was in the colonies that populations were explicitly constituted as subordinated subjects, whose health, resources, productivity and regularities were the objects of governance. Fingerprinting, for example, which has come to be used worldwide as the 'scientific' means of identifying an individual, was first utilized for this purpose in India by the colonial government in Bengal. Gyan Prakash, *Another Reason, Science and the Imagination of Modern Indi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6.

28) Rochona Majumdar, *Writing Postcolonial History* (Bloomsbury Academic, 2010), 85-106, Kathleen Wilson, *A New Imperial History: Culture, Identity, and Modernity in Britain and the Empire, 1660-18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atherine Hall and Sonya O. Rose eds., *At Home with the Empire: Metropolitan Culture and the Imperi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asserting the centrality of the non-West/colonized, these recent currents shift the focus to imperial network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West and the non-West, suggesting that colonial issues should be treated not as external to modern Europe and nation-state formation, but as part of internal history.

In this context, the necessity arises for studies of mass dictatorship to analyze modern ideologies and the mobilization of mass dictatorship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metropole and colonies. But there are a couple of questions to consider: first, how do we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ire and the nation-state? This concerns not only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gime, but also the unit of analysis. Is empire a different political system from the nation-state or merely an extension of it? Judging from its treatment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seems to hold the latter view.²⁹⁾ But when the power mechanisms of British Empire and the German nation-state are compared and discussed on the same level, colonies become an ambiguous space. Analyses of the imperial dimension assign to the colony the space of the categorical other – a position of utter exclusion – against which metropole constructs its national identity. Contrarily, in analyses of one national dimension, the colony represents a space of consent upon which the legacies of imperial nationalization wield power reaching

29)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 have differentiated empire from nation-state. “Empires are large political units, expansionist or with a memory of power extended over politics, that maintain distinction and hierarchy as they incorporate new people. The nation-state in contrast, is based on the idea of a single people in a single territory constituting itself as unique political community. The nation-state proclaims the commonality of its people – even if the reality is more complicated – while the empire-states declare the non-equivalence of multiple populations. Both kinds of state are incorporative – they insist that people be ruled by their institutions – but the nation-state tends to homogenize those inside its borders and exclude those who do not belong, while the empire reaches outward and draws, usually coercively, peoples whose difference is made explicit under its rule. The concept of empire presumes that different peoples within the polity will be governed differently.”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 *Empire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as far as the postcolonial state. In this case, metropole and colonies lose their difference and are put into the same space. As such, the nature of colonial space is changed according the unit of analysis, calling for a more sophisticated theorization of political systems and analytical units.

This leads to the second question: While the theory of mass dictatorship advances sharp criticisms against Western modernity focusing on colonial violence, doesn't it leave the colonized/subaltern as a passive object helplessly exposed to the central forces? Indeed, the colonized/subaltern is assigned a space upon which Western modernity's internal violence is exerted, but not the historical agency to affect the formation of Western modernity. As long as the colonized/subaltern remains a passive objec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est and the non-West is impossible, making the identity of the West/metropole seem fixed and constant, rather than fluid and unstable. It may be useful to pay attention to the recent problematization of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trans-atlantics slave trade dedicated to describing the sacrifice of the Africans. The traditional discourse criticizing the trans-atlantics slave trade as a case of the West's non-humanitarian violence paradoxically turns Africa into a land of ignorance and no hope whatsoever. It fails to acknowledge that Africans themselves actually took part in the slave trade, and that those forcibly taken to the Americas survived through their hardships, all playing a role - positive or negative - in creating the modern world. It is with this awareness that attempts are being made to rethink 'the age of revolution' and political modernity through the history of the Haitian Revolution.³⁰⁾

But that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has recently begun to incorporate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lltagsgeschichte*)" approach, developing the concept of 'everyday coloniality' is indicative of its

30) Sibylle Fischer,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Nick Nesbitt, *Universal Emancipation: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Radical Enlightenment*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8); Susan Buck-Morss, *Hegel, Haiti and Universal Histo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9).

move toward overcoming its limitations and offering a new direction for research.

IV. Transnational Remembering of Mass Dictatorship

The politics of memory is an important battlefield that has become increasingly problematic in the post-dictatorship era.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challenges the notion of historical sovereignty that reinforces the hegemony of nation-states, because it finds that the nationalization of memory is a major obstacle to truly coming to terms with mass dictatorship.³¹⁾ Asserting an a priori responsibility for crimes committed in the name of the nation even before one has been born the idea of 'collective guilt' assigns the category of nation to the ideas and actions of an individual. The collective guilt or innocence paradigm dominating the discourse over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Germany-Poland and Korea-Japan clearly indicates this problem.³²⁾

Since victims without perpetrators are unthinkable, hereditary victims can only exist by presupposing hereditary perpetrators. The 'hereditary victimhood' prevalent in Poland and Korea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ostwar generation of Germany and Japan are

31) Jie-Hyun Lim,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Historical Sovereignty,'" Jie-Hyun Lim ed., *Frontiers or Borders?* (Korean) Seoul: Humanist, 2004, 19-34. Just as a state claims ownership over its territory, so a nation claims exclusive ownership and sovereignty over its past. In the same way that the world heritage sites designated by UNESCO are the properties of individual states, the pasts of humanity are imagined and distributed as legacies exclusively owned and managed by each nation. The ongo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re a good example of claims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past.

32) Jie-Hyun Lim, "Victimhood Nationalism in Contested Memories: National Mourning and Global Accountability," Aleida Assmann and Sebastian Conrad eds., *Memory in a Global Age: Discourses, Practices and Trajectories* (Palgrave Macmillan, 2010), 138-162.

hereditary perpetrators.³³⁾ And hidden underneath this premise is a consciousness of collective innocence as victims of Nazism and colonialism respectively. When one defines oneself as a hereditary victim, the possibility of critically reflecting upon one's position as a perpetrator is already ruled out. This is one reason why there are countless reports of Japanese atrocities during its colonial rule and massacres of innocent civilians by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while crimes committed against innocent civilians by Korean soldiers during the Vietnam War remain unspoken to this day. Hereditary victimhood leads to the idea that purging a handful of traitors is all that is needed to come to terms with the past, and severely obstructs our path to overcoming internalized value systems of colonialism and racism.

Collective memory built on hereditary victimhood creates the aspiration for a strong state and reinforces the hegemony of state power over civil society. Generally corresponding to Korea's experience with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past anti-North spy incidents, a 2003 Korean college student opinion survey showed that while 90% of the students saw America's war on Iraq as an act of aggression, 72.2% agreed that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was inevitable for the good of the country. The ethical contradiction of willing to take part in a war of aggression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was also evident in the mass media's hailing of Korean humanitarian relief acts in Haiti and the dispatch of Korean armed forces in 2010 as signaling the beginning of "global Korea." This attitude of taking the sufferings of others as a means to promote

33)Based on this line of logic, the postwar generations of Germany and Japan have been regarded as hereditary perpetrators and have been told to beg forgiveness for Nazism and colonial invasion of past generations. This is where collective guilt converges with the "logic" of genocide that people deserve to die because they belong to a certain nation,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actions or responsibilities. Paradoxically, by reinforcing the national identities of those nations blamed for past crimes, collective guilt provides a fertile ground for neo-Nazis or extreme rightists to emerge and gives other nations exemption from any historical role in those crimes. As long as the holocaust is the problem of Germany alone, the rest of the world can focus on keeping Germany under its surveillance without the burden of self-reflection.

national interests betrays a sub-imperialist desire.³⁴⁾

Behind this open display of imperialistic desire is the logic that Koreans are victims and therefore entitled to harbor such desire, as well as a sense of inferiority as a peripheral nation. It acknowledges the superiority of Western nations while aspiring to become their equal.³⁵⁾ But it should be noted that behind this sub-imperialist desire lies the existence of around 800 conscientious objectors currently imprisoned in Korea, largely stigmatized as "cowardly non-nationals" in the name of "the sacred duty of national defense". The problem of mass dictatorship, of an exclusive and violent national discourse dominating society, is not only of the past, but the present as well.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aims to create, in the words of Susan Buck-Moss, a "de-privatized, de-nationalized structure of collective memory."³⁶⁾ The logic of collective guilt/innocence is not adequate for dealing with atrocious and tragic pasts. A meaningful insight we can take away from the study of mass dictatorship is that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of modern civilization, we can all become perpetrators of 'categorical murder.' This is why it is dedicated to making a connection between colonial violence and the holocaust through the historical link of modern violence

34)Activities in Haiti where the state system is near total collapse will be a testing ground for the Korean armed forces to accumulate overseas dispatch experience and hone their capacity."최종철, "아이티파병, 중견 국한국의길,"Donga Ilbo article (Korean) 23, January 2010

35)The expression of this desire was plain to see in remarks by a prominent rightist figure, wholooking at the ruins of the Haiti disaster, recalled those days when, "we used to chase American army vehicles shouting 'give-me-chocolate'" and tearfully adding, "seeing the Republic of Haiti with its slack national character makes me very happy to have been born and to liv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 am ever so proud of our country." In this cas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Haiti is subsumed under that between the US and Korea, through which the Western gaze is applied upon oneself and the other. "폐허의아이티에 희망심는코리아,"SegyeIlbo article (Korean), 10, October 2010

36)Susan Buck-Morss, "The Gift of the Past," *Small Axe* 33(November 2010), 185.

and expanding mass dictatorship beyond the border of nation-state into an issue of Western modernity. Examining the (self) mobilization of the masses for dictatorship, along with the transnational remembering of it, provides a mirror for us to reflect upon our own actions and values. Historical agents as reflective selves can ward off the system's ambition to nationalize the masses. With renewed historical agency, the multitude can be transformed from subjects of a homogeneous identity into autonomous individuals with a rich spectrum of diversities, creating fissures in the political structures supporting mass dictatorship.³⁷⁾

중앙대학교, hayoungjun@hanafos.com

37) Jie-Hyun Lim, "Modern Origins," 62-64; "Series Introduction," 16-18.

<초록>

대중독재와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어떤 근거에서 대중독재는 트랜스내셔널한가?

하영준

연구 프로젝트로서 대중독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출현한 박정희 체제에 대한 대중적 향수라고 하는 포스트-독재적 문제상황으로부터 기원한다. 이것은 독재를 근대화의 일탈 또는 왜곡이라는 이름하에 파문하거나, 독재를 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독재에 대한 대중적 욕망을 끊임없는 재생산하는 권력기제로서, 근대화와 국민화 자체의 폭력적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대중독재론은 국민국가의 '정상적 예외(normal exception)'로서 20세기 독재를 자신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독재라는 '예외'를 통하여 국민국가 체제라는 '정상'자체가 폭력과 억압의 산물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독재 체제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근대적 권력과 동위의 기제들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단순히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욕망을 배치하고 일상을 규율 하는 국민국가의 권력 기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중독재가 20세기 독재의 대중 동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계발하는 트랜스내셔널 역사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 논문은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 둘 사이에 관계를 시론적으로 탐구하면서, 대중독재론이 트랜스내셔널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시도한다.

주제어: 대중독재,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국민국가, 신제국사, 인종주의,

<Abstract>

Mass Dictatorship and Transnational History:
Exploring Conceptual Fundament for the Connection

YoungJun Ha

Mass dictatorship as a working hypothesis originated in these post-dictatorial situations as the problematic emerged after Korea's democratization. It is not about justifying dictatorship 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modernization. It is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violent nature and the mechanism behind modernization and nationalization endlessly reproducing the desire of the masses for dictatorship. The Idea of mass dictatorship centers on dictatorship as a 'normal exception' of a nation-state. It takes the 'exception' of dictatorships as a prism through which the 'normality' of the nation-state system is revealed as a product of violence and oppression. In other words, the mass dictatorship project is an attempt to grasp the workings of power by the nation-state, through getting to the bottom of the mechanisms of modern power and consent supporting the system of dictatorship. By dealing with these problems, it opens the door to think out the possibilities of a transnational history stimulating and developing critical imaginations regarding the nation-state system.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s not very clear. On what foundations, is Mass dictatorship transnational? What exactly does the appellation 'transnational' stand for in Mass dictatorship? This paper will scrutinize the links between Mass dictatorship and a transnational perspective for histories.

Keywords: Mass Dictatorship, Transnational History, Nation-State, New Imperial History, Racism

■ 연구노트 ■

『이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박 단

I. 문제제기

2012년 9월 1일 이민인종연구회 가을 정기 학술모임에서 Christiane Harzig and Dirk Hoerder, *What is Migration History?*(Cambridge : Polity Press, 2009)을 회원들과 함께 읽었다. 필자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1. Introduction: Popular Views –Scholarly Reconceptualizations였다. 여기서 책의 저자들은 이주연구의 한계나 미해결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때마침, 필자 또한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서강대출판부, 2013)이라는 이민사 관련 책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최종 교정을 보고 있었기에 『이민사란 무엇인가?』의 저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들 문제제기 가운데에는 필자의 저서에서 일부 다루어진 항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곳에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에 관해 주로 연구해 왔다. 때로는 프랑스의 이민자정책을, 때로는 프랑스의 무슬림이민자들의 정착과정을, 그리고 때로는 이민자들과 주류 사회의 갈등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고민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 연구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다루어왔다는 점이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국적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터키, 그밖에 중동국가 출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출신들까지 뒤섞여 있다. 이들은 전통과 문화가 서로 다름에도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에 묶여 있다. 또한 이들 이주민 가운데에는 프랑스에 이미 충분히 동화된 무슬림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무슬림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무슬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을 하나의 무슬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호스트 사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출발지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민사란 무엇인가?』의 저자들의 문제제기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이유로 종교 문화적 원인과 사회 경제적 원인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슬람과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 문화적 갈등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있으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것이다. 조안 스코트의 『베일의 정치학』(The Politics of Veil)¹⁾에서도 강조하듯이 분명 알제리 등 프랑스의 이슬람 식민지 및 이민자들을 연구할 때,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강조됨은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럽계 이민자와 무슬림 이민자를 설명하면서 유럽계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훨씬 잘 동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들에게는 동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신화’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머문 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즉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자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민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유럽에서 떠나라는 극우파의 주장과 논리가 횡횡한다. 이들의 주장에 맞서려면, 이민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자기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떻게 극우파의 논지에 맞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나마 한 가지씩 풀어나가 보겠다. 필자는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를 전공한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필자의 기존 연구 성과

1) Joan W.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를 사례로 인용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II. 무슬림의 다양성

필자의 경우, 지금까지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과 관련된 글을 써오면서, 특별히 이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아마 특별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어찌 보면, 프랑스공화국의 ‘단일한 프랑스’라는 입장을 무의식적으로 추종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것도 아니면, 프랑스 무슬림이민자 2세대와 관련된 ‘히잡 사건’이나 이민자 정책들을 살펴볼 때, 그 자체에 몰두하여 무슬림들을 세분하여 볼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히잡 사건’만을 보더라도, 교내 히잡 착용과 관련하여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의 마그레브 지역 이주민과 터키, 이란 혹은 중동국가 출신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을까? 아니면, 마그레브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났을까? 프랑스 내에 존재하는 이슬람 단체별로는 입장이 어떠했을까? 출발지가 상이하면, 분명 정착사회에서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론이 어느 정도 타당할까? 이러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 관한 무슬림이민자의 입장을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민자들을 우선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les musulmans français)과 ‘프랑스 내의 무슬림’(les musulmans en France)이 그것이다. 전자는 이미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 프랑스인들과 어울려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사적영역에서만 신봉하는 세속화된 사람들이며, 후자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여전히 자신이 무슬림임을 공적영역에서조차 드러냄으로써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²⁾ 프랑스에 거주하

2) 이는 마치 French Jews와 Jews of France(français israélites)로 구분하는 조안 스콧의 유대인 구분과 흡사하다. 전자는 아직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동화하지 않은 유대인을, 후자는 프랑스 보편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유대인을 말한다. Joan W. Scott, 75-76.

는 무슬림들을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민자들을 일괄적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로 매도해서는 프랑스 무슬림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상당수 연구들이 무슬림들의 프랑스 사회 내 ‘부적응’, 혹은 그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주로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프랑스 내 문화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히잡 사건’이 경우 얼핏 프랑스 내 모든 무슬림 여학생이 다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관된 학생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2004년 3월 15일의 법안’(일명 ‘히잡 금지 법’) 이후 히잡 쓰기를 고집하여 퇴학당한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일 뿐이다.³⁾ 또한 프랑스 내에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총 2천 명을 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르카 금지법을 어겨 기소된 자는 2011년 9월 22일 북동부의 모(Meaux) 지방에서 처음으로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⁴⁾ 이는 바꾸어 말하면, 대다수 프랑스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무슬림’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는 프랑스 내 무슬림의 비율이 적게는 5%,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는 조사⁵⁾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즉,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종교적 실천행위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의 수는 더욱 적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무슬림이민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민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 3) 2000년 초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였던 여학생 수는 1,254명이었고, 그 수는 25여 만 명 정도의 무슬림 여학생 중의 극소수라 할 수 있다. 홍태영, 『정체성의 정치학』(2011, 서강대출판부), 163에서 재인용.
-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80933> (검색일자: 2011.9.26)
- 5) Catherine Wihtol de Wenden, “Seconde génération: le cas français,” Rémy Leveau et Khadija Mohsen-Finan (ed.), *Musulmans de France et d'Europe*(Paris, 2005), 17.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가능하다면, 좀 더 세분화된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민사를 살펴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인종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논리 또한 프랑스가 인구센서스에서 인종, 종교에 대한 항목을 두지 않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계속 논쟁 중에 있는 ‘종족통계(statistiques ethniques)’ 논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할 것이다.

III. 이민자 통합에 대한 종교 문화적 원인과 사회 경제적 원인

필자가 그 간의 연구에서 강조했던 것은 프랑스 주류사회와 무슬림이민자 혹은 그 2세대 사이의 ‘문화전쟁’이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무슬림이민자들이 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또 진정 공화국시민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즉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종교 문화적 측면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 두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월등한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종교 혹은 문화가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안 스코트는 앞서 언급한 자신의 책에서 프랑스 사회통합에서 ‘문화’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한다. 프랑스 사회 내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을 언급한 후, “문제는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오히려 다루기 힘든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말한다.⁶⁾ “여기서 오래된 문명화사명의 역설이 다시 등장한다. ... ‘문화’는 이들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막는다.” 스코트는 “북아프리카인들이 이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인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소개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이슬람과 북아프리카인들의 문화가 혼용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인들은 무슬림의 사회통합 정도를 종교보다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6) Joan Scott, 80.

마그레브 이민자문제에 있어 종교의 세속화와는 별개로 무슬림의 전통과 문화 또한 프랑스인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 사회통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슬림이민자 2세대 혹은 3세대 등은 결혼 및 가족형태, 출산율 등의 문제에 있어 프랑스인과의 혼합결혼 등을 통해 점차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고 있다. 단지 사회 경제적 상황이 이들의 완전한 통합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무슬림이민자들에 의해 계도화되고 있는 일부 방리유들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화 되고 있다. 이들의 높은 실업률과 치안 문제 등은 극우정파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의 선거에 있어 단골 이슈이다. 특히 극우정파가 부각시키고 있는 이들의 높은 범죄율, 복지혜택 문제 등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이슬람혐오주의를 양산하게 되고, 이는 프랑스의 미디어와 정치에 의해 더욱 널리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문제와 연계되어 간혹 일어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는 무슬림이민자 2세대를 프랑스 사회 내에서 더욱 타자화시킨다. 무슬림들의 종교적 세속화 여부와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무슬림이민자들의 종교와 문화에 접속되면서 ‘무슬림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극우파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에서 무슬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무슬림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그리고 국제정치적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이들만의 책임인가를 묻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만의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현재의 이민자 통합정책, 공화국원칙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유럽계 이민자의 사회통합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유럽계이민자들은 무슬림이민자에 비해 프랑스

사회에 비교적 잘 동화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신화’는 이들 유럽계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과정을 너무 순탄한 과정으로 믿게 만든 것은 아닌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유럽계이민자들이 양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며 프랑스를 떠났다는 사실을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

폴란드 노동자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1930년대 경제공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체류 동안 이들 이민노동자들은 프랑스노동자들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겪었으며, 흔히 실업에 처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민자들 또한, 전쟁 후 그들 국가의 여건이 나아지자마자 귀국행렬에 동참하였으며, 더 나은 조건을 따라 타국으로 떠났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프랑스로 온 유럽계이주민 상당수는 현재 프랑스에 남아있지 않다.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3공화국의 외국인민자 정책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자뿐 아니라 떠난 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떠난 자들은 출신지로의 귀향을 통해 프랑스 시민으로 동화되기 어려웠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프랑스로 온 수많은 이방인들 중 일부만이 프랑스인으로 살아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잔류한 사람들은 프랑스 사회로 완전히 동화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출신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사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과연 실현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럽계 이민자들이 ‘프랑스적 용광로’에 녹아들었다고 평가받고 있고 무슬림들과 달리 사회적 차별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정착한 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점과 프랑스와 같은 종교를 공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출신국과 프랑스가 커다란 정치적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이들의 외모와 이름이다. 이들은 “아이사타, 파투, 하시드, 무하메드”라는 이름⁷⁾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그나마 고용이나 거주 등에서 주류 프랑스인으로부터 가시적인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 또한 이민자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V. 유럽 내 무슬림이민자문제의 해결 방안

그러면, 우리는 주류사회와 이민자사회 사이의 갈등-그것이 문화적 갈등이든 사회경제적 갈등이든 간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그 갈등이 이슬람사회와 서구사회 사이의 갈등일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문제는 단순한 이민자 문제 혹은 종교 문화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미래 인류 전체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이 지적한 대로, 20세기 말 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된 이후 문명 간의 충돌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상징하듯,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 사이의 충돌이다.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 간의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전개되었던 구 유고연방의 인종청소,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내전 등 그 사례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국제전 양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이 쇄도함으로써 유럽 내에서는 소위 ‘문화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전쟁은 서구기독교적 가치와 이슬람의 가치의 충돌로 해석될 수

7) 영화 『클래스』에서 일부 학생들이 Bill이라는 백인을 상징하는 이름 대신 사용할 것을 주장한 이름들이다. Cf. 박단, 「영화 『클래스』를 통해 본 폴라스 학교와 이민자 2세」, 『프랑스사 연구』, 22호(2010.2)

있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적 갈등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 식, 주에 관련된 모든 것과, 행위와 정서와 사고의 양식들”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종교, 민족, 인종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가치체계, 가족시스템,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문화전쟁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1989년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서구문명 간의 ‘문화전쟁’이 일어났다. 공립학교 내 무슬림 여중생들의 히잡 착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전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전쟁’은 줄을 이었다. 네덜란드 영화 감독인 테오 반고호가 이슬람 여성을 폄하하는 <굴종(submission)>이라는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피살된 사건, 2005년 런던 7.7 테러 사건, 2006년 덴마크 일간지의 마호메트 모욕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겉으로는 현재의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종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연원은 뿌리가 매우 깊어 쉽게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그 연원은 단지 19세기 식민지배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인들과 중동지방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배는 서구 유럽국가와 이슬람 간의 상호반목을 심화시킨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는 탈식민지 이후에도 여전히 두 문명 사이의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732년 푸아티에 전투, 중세 십자군, 중세 말의 레콩키스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와 이슬람 간의 대립은 생각보다 그 뿌리가 매우 깊다.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호공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유사성이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만큼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신인종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개념보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그들’과 ‘우리’ 모두가 사실상 내적으로 상당히 분화되어 있으며, 그 경계가 유동적이고 흐릿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만일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받아들여진다면, 두 공동체가 상호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이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구사회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두 문명 간의 갈등이 식민 지배를 통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사실, 두 문명 간에는 반드시 갈등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시기 아랍세계의 고전그리스철학과 과학의 전래가 없었다면 오늘날 서구문명은 그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두 문명이 상호 협력했던 시기를 집중 부각시키고, 이를 교육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슬람세계의 인식변화이다. 과거 서구사회의 식민지배와 핍박에 대한 피해의식을 떠나 상호공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서구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전쟁을 종식시키고 상호공존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문명 간의 무지와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dahn@sogang.ac.kr

■ 연구노트 ■

‘피해자 독일인’, ‘가해자 폴란드인’?
독일의 강제추방반대센터(*Zentrum gegen Ver-*
treibungen) 건립을 둘러싼 독일-폴란드 갈등

오 승 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에서 <강제추방 반대 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전역에서 추방된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독일 실향민들의 삶을 기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센터>이다. 그런데 독일 실향민들을 위한 센터 건립을 바라보는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못하다. ‘베트라이벤(Vertriebenen)’이라 불리는 독일 실향민들이 역사의 희생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들을 불행으로 이끈 역사적 질곡의 책임이 자칫하면 동유럽 사람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동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방의 원인은 독일이 주도해서 일으킨 2차 대전과 동유럽 침공에 있다. 독일의 침략과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의 이중 침공으로 전체 인구의 1/4(인구 2,400만 중 600만 사망) 하여 전체 인구의 1/4을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폴란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야말로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의 가해자성이 아닌 피해자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실향민들의 시도는 역사적 진실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실향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사회와 동유럽 사회가 서로

자신들의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난 세기 시작된 왜곡된 역사의 잔재에서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과 대면하게 된다. 역사의 이름으로 야기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해매는 사람들의 질곡 된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 노트에서는 일단 전통적 희생자로 간주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강제추방 반대 센터> 건립 문제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I. 강제추방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과 독일-폴란드 갈등

근대 유럽에서 강제이주는¹⁾ 주로 동유럽에서 발생했지만, 강대국 독일도 예외적으로 대량 강제이주를 경험한 바 있다. 2차 대전 패전 직후 12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동유럽에서 추방되어 본국으로 쫓겨 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강대국들이 합의 하에 독일-폴란드-소련 간 국경선(the Curzon Line)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 추방이 이루어졌다.²⁾ 소련의 도움으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연합국이 스탈린의 요구를 받아들여 폴란드의 동쪽 지역은 소련에 내주고, 대신 패전국 독일의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 내어주는 영토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에서 살던 약 400만으로 추정되는 독일인들이 현재의 독일 국경선 안으로 강제 이주 당했으며, 폴란드 사람들은 떠나는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1) 근대 이후 동·서 유럽 간의 이주를 유형별로 구분해봤을 때, 가장 많은 이주는 민족적 이유(ethnic migration)에서의 이주로 나타났다. 19세기 이후 특히 동유럽에서 벌어진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강제추방과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 이동이 많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체 이주의 75%를 차지하는 민족적 이유에서의 이주는 15%를 차지한 노동이주 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다. Heinz Fassmann & Rainer Münz, "European East-West Migration, 1945-1992,"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8, No.3(Autumn 1994), 520-538

2)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커즌 라인(Curzon Line)'이라는 새로운 폴란드 동부 국경이 정해지면서 전쟁 전 폴란드 영토의 절반 정도가 소련으로 편입되었다.

그간 이들 2차 대전 독일 실항민들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독일 사회에 재정착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은 ‘독일 실항민 연맹(Bund der Vertriebenen, BdV)’이었다. 그러나 ‘독일 실항민 연맹’은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요구로 지지나 지원을 받기 보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차 대전 이후 새로 확정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던 땅을 돌려달라거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행동을 해왔다. 이 ‘연맹’이 2000년 9월 6일 발표한 ‘실항민 반대 센터수립을 위한 재단(Stiftung Zentrum gegen Vertreibungen, ZgV)’ 설립 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단’을 통해 2차 대전이후 동유럽에서 강제추방당한 독일인들에 관한 기록보관을 위한 <강제추방반대 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주도한 것은 나중에 기민당 국회의원이 된 슈타인바흐(Erika Steinbach) ‘연맹’ 회장으로, 그간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추방반대센터> 설립 계획은 적어도 독일 사회 내에서는 초기의 비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강제 추방당한 자국민들(Vertriebenen)의 문제를 비롯한 독일 희생자들 문제는 금기시 되어왔었다. 나치 독일=가해자라는 역사인식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전역에서 팽배한 상황 하에서 적어도 일부 독일인 희생자도 존재함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판적이던 쿤터 그라스 같은 좌파 지식인들조차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비판적 독일 공적 담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³⁾ 기존의 독일인=가해자라는 등식을 깨고 독일인도 피해자의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많은 비판 속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후 서서히 나타난 독일 역사인식 상의 변화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3) Pawel Lutomski, “The Debate about a Center against Expulsions: An Unexpected Crisis in German-Polish Relations?”, German Studies Review, Vol.27, No.3, 2004, 450.

그러나 독일 <강제추방반대 센터> 수립 계획은 폴란드와 체코 등 이웃 국가에서 분노를 폭발시켰다. 폴란드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판과 공격이 쏟아져 나왔고, 독일 센터를 빗대어 ‘화해에 반대하는 센터(Center against Reconciliation)’라고 불렀다. 독일=가해자라는 등식의 파괴는 이웃한 동유럽 사회에 널리 퍼진 동유럽=나치 독일의 피해자라는 등식이 깨져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의 역사 인식 속에서 보면, 독일인들이 추방된 것은 나치가 일으킨 전쟁과 그로 인해 폴란드 사람들이 입은 훨씬 더 많은 피해에 대한 응분의 대가일 뿐이다. 또한 2차 대전 후 연합국과 소련간의 합의에 따른 국경이동으로 폴란드인도 149만 명이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이 추방된 것이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며, 강제추방반대센터는 이러한 맥락을 오히려 뒤집어 놓을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추방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II. 해결책은 범유럽 차원의 추방 반대 센터?

2008년 이후 그간 담보상태에 있던 ‘강제추방반대센터’ 수립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독일 정부는 <강제추방반대센터>가 가진 독일 민족주의적 색깔을 탈각시키고, 범유럽적 차원의 추방반대센터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번드 네우만(Bernd Neuman) 독일 문화 미디어 장관은 독일인 추방은 상설 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20세기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추방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질 것임을 강조했다.⁴⁾ 즉 국가대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강제 센터’ 수립을 위한 15인 위원회를 설립하며,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새로 발표된 설립 제안서의 모토 “추방을 기억하라, 추방을 인정하라. 화해와 이해를 깊게 해라.”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범유럽 차원의 센터라고 해서 문제가

4) *Ibid.*, 2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듯 유럽 공통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즉 트랜스내셔널한 유럽사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한 해결책이냐는 점이다. 독일이나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대륙 많은 곳에서 벌어진 범유럽적 문제의 차원에서 강제추방 문제에 접근할 경우,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동유럽과 서유럽간의 억압과 피억압, 지배와 피지배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역사성은 자칫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독일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뿌리 깊은 역사적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한 폴란드 역사에 내재된 집단기억의 비대칭성(asymmetry of collective memory), “고통의 비대칭성(asymmetry of deprivation)”이라는 문제는 독일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유럽 차원의 강제 추방 센터 건립에 의해서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동유럽으로부터 추방된 것을 유럽에서 이뤄진 다른 강제 추방,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당시의 보스니아 무슬림 추방과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치의 범죄라는 원인과 동유럽에서의 독일인 추방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과오를 금기가 아닌 생산적 담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오랜 문제와 다시 한 번 대면하게 된다. 비극적 추방을 일으킨 2차 대전 당시만이 아니라 6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동·서 유럽 간의 종속 관계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화해를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화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논쟁에서 드러나는 동유럽 사회의 민족주의적 배타성과 편협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서 유럽 간의 종속적 관계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라이벤(Vertriebenen)’이라 불리는 독일 실향민뿐만 아니라 ‘피에-누아(pieds-noirs)’라 불리는 알제리 독립 후 프랑스로 철수한 프랑스인들 같이 서구 식민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서구 실향민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양대, narodna21@hanmail.net

■ 지금 여기 ■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안

김정욱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는 이민법의 개혁을 공언해왔다. 그가 추진했던 드림 법안(Dream Act)은 새롭거나 획기적인 이민법 개혁안은 아니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s) 2세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2세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 후 이 중 범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관한 최종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실제 이 법안은 2001년 이후 5번에 걸쳐 의회에 상정되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상원에서 가결 정족수에서 4표가 부족한 56표를 얻어 부결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 부결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이전에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단호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대선에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히스패닉계 유권자에 대한 답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민주당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 대표가 15명의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불법이민자 및 그 2세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S1)’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같은 달

라스베이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이민법 개혁안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민 개혁안은 과거 드림 법안의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법안이다. 리드의 법안은 불법 월경자 및 체류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범죄인 신원조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의 임시적인 거주를 보장하며 향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수혜자는 대략 1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초청 근로자 제도 확대에 관한 내용 역시 담고 있다.

이민 개혁안 통과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다. 오바마의 등장 이후 공화당 일각에서의 당의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당의 보수적 색채를 엷게 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어왔다. 가령 물문교도로서 문화적 보수주의자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롬니의 태생적 한계로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는 한동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반대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특히 히스패닉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본토인 정당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5년간 한시적으로 초빙 노동자 제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민 개혁안을 논의하자 이의 입법화를 거부하고 불법이민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들을 고용한 자까지 처벌하는 프리스트법을 발의하며 맞섰던 공화당 보수파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다.

현재 공화당내에서 이민법 개혁안에 동조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는 당내 중도파를 대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초청 노동자 제도의 확대에 있어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해온 존 맥케인이다. 맥케인은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와 더불어 이민 개혁안을 논의하는 양당 협력 기구인 8인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백악관을 방문하여 위원회에서 합의된 이민법 초안을 브리핑하기도 하였다.

8인위원회의 초안은 새로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와 같은 조치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여 2011년 12월 31일 전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게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며 다시 3년 후 시민권을 획득한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벌금을 납부하고 범죄인 신원 조회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임시 거주증을 부여하고 영어 습득 여부와 고용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하여 미국 대학에서 기초과학과 공학 관련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의 확대와 초청 노동자 제도의 시행 확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이민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1986년 레이건 행정부가 사면 조치를 취한 후 처음으로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일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이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국가별 취업이민 쿼터가 확대됨에 따라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으로의 이민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여전히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개혁안에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오바마의 재선과 더불어 시작된 이민 개혁안 논의는 9/11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간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선호하고 이민자들에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소극적이던 공화당내 보수파의 입지가 일정정도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히스패닉이라는 거대 선거인단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공화당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양당이 증세와 복지정책을 놓고 오래된 싸움을 시작하고 시퀘스터가 현실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 내에 공화당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있거나 당내 보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양당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면에는 매케인이 내세우고 있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면서 미국의 발전에 대한 (불법)이민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현하려는 초당적 의지가 아니라 이민 개혁안이 야기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민 개혁안이 미국의 이민정책이나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실례로 개혁안은 미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도록 할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는 불법이민자의 상당수를 이루는 고학력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이민 역시 고급인력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 산업을 포함하여 재계가 이민법 개혁안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안이 향후 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새로운 유권자의 충원과 이가 가져올 장기적인 유권자 구성비의 변화는 비백인 이민자 사회의 정치적 힘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의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jukimahh@hanmail.net

■ 지금 여기 ■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남 옥 정

I.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 시리아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망명설, 암살설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 내부에 강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시리아 사태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시리아인들이다. 지금까지 최소 7만 명의 시리아인이 사망했고, 위험한 시리아를 벗어나 주변국가인 터키,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경지대로 몰려든 시리아 이주민들의 수는 알려진 바로만 100만 명이 넘는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조사된 시리아 국경지대의 난민 수가 총 1,121,816명이며, 등록된 난민은 910,349명이다. 이중 터키에 258,200명, 레바논에 351,683명, 요르단에 346,577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으며, 또한 211,467명의 시리아 난민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집을 떠나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선 시리아 국내 실향민들의 수만도 어렵잡아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²⁾ 하지만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 10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면 올해 말에는

1) 조선일보, 시리아반군 “알아사드 대통령, 경호원에게 암살되다.”, 2013. 3.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0/2013033000744.html. (검색일: 2013년 5월 2일)

2) UNHCR, <http://www.unhcr.org>. (검색일: 2013년 3월 10일)

난민이 2~3배로 증가할 것"³⁾이라고 경고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초,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실향민의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난 이주민의 수를 더한다면, 시리아는 전체 인구 2천250만 명 중, 4명당 1명이 피난민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시리아의 한 인권감시단체가 지난 3월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달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망자가 6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⁴⁾ 현재 시리아는 안전한 곳이 없으며, 난민촌이나 쉼터 등 머물 곳을 찾지 못한 난민들은 그들이 원래 왔던 곳으로 -비록 불안정할지라도- 돌아가야 할지, 포화상태의 난민촌 주위에서 등록 순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⁵⁾

II. 시리아 사태 추이와 원인

시리아 사태는 2010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에서 영향을 받은 소규모 평화시위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시리아의 청년 ‘하산 알리 아클레’의 시리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분신자살과 이틀 뒤 2명의 쿠르드 혈통 군인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항의시위가 있는 뒤 같은 해 3월 시리아 남부의 ‘다리아(Derra)’⁶⁾에서 17세의 어린 학생 15명이 그들의 학교 벽에 “국민은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⁷⁾는 낙서를 한 후,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민

3)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난민 연내 2~3배로 늘어날 것”, 2013. 3. 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3/10/0605000000AKR20130310080500009.HTML>.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4) 연합뉴스, “시리아국민 4명중 1명은피난민”, 2013. 4.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5/0200000000AKR20130405146300009.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5)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submit=GO>.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6) Derra(درعا)는 요르단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리아 남부의 오래된 아랍 도시이다.

7) “Al-Sha'b Yuriduna 'Isqat al-Nidaam”라고 적은 시리아 학생들의 낙서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의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구호였다.

봉기의 불이 당겨졌다.⁸⁾ 정부군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점차 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원인을 종파 간 분쟁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권력투쟁의 대리전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자, 주변 아랍국가나 서방국가의 개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알 아사드 가문은 시리아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쉬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로, 다수의 주민이 순니 무슬림인 시리아를 40여 년간 장기 통치해 왔다. 이는 1963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지금까지 비상사태 선언을 종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도한 정부군의 진압행태를 비판하며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던 -다수가 순니파인- 시리아국민의 요구가 아사드에 의해 쉬아파의 집권에 불만을 품은 시리아 내 순니파의 집단적 행동으로 묘사되며 점차 시리아 사태는 종파 분쟁 양상으로 번졌다. 이는 곧 주변 아랍국가의 대(對)시리아 정책에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연맹은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 지지, 아랍연맹 회원국 지위 박탈 등으로 반 아사드 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시리아의 쉬아파를 돕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타살 배후에 시리아 정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리아를 비난해 왔던 사우디는 레바논에 주둔중인 시리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고립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⁹⁾ 한편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게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각에 대비하여 시리아에 만 명 규모의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전황이 워싱턴포스트지 등에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¹⁰⁾ 더 큰 문제는 시리아 내전사태가 주변 아랍 국가들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8) "Al-Thawrat al-Suriyah-'Asbaabuha wa tafsiiil lil 'Ahdath", Shaahid-naa, 2011. 5. 17. <http://www.viewours.com/news/syria/syrian-revolution/>. (검색일: 2013년 4월 25일).

9) Berti, Guzansky, "The syrian Crisis and the Saudi-Iranian Rivalr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https://www.fpri.org/articles/2012/10/syrian-crisis-and-saudi-iranian-rivalry>. (검색일: 2013년 4월 25일)

10) 2013. 2. 11 ,WP: Iran and Hezbollah build militia networks in Syria in event that Assad falls officials say, <http://new.elfagr.org/Detail.aspx?newsId=281504&secid=24&vid=2>. (검색일: 2012년 4월 26일)

이라크에서는 폭발테러로 인해 현재까지 1,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4월 27일 방송 연설에서 “종파 분쟁이 이라크로 다시 돌아 왔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시리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¹¹⁾ 알리 알 무사위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라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지만, 시리아 사태는 이라크 쉬아파 정부와 순니파 야권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¹²⁾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5월 3일과 5일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전달될 이란제 파데-110미사일을 타격했다.¹³⁾ 이에 5월 25일 레바논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개입을 공식선언하였고,¹⁴⁾ 남부 레바논에서 발표된 로켓 포탄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떨어지면서¹⁵⁾ 지역분쟁 조짐이 심상치 않게 표면화되고 있다.

III.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동패러다임의 재편성

패트릭 클라우슨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은 시리아의 불안한 정세는 중동지역 전역이 깊이 연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째, 아사드의 밀접한 전략 파트너인 이란이 받는 영향, 둘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권력 점유와 중동 패권의 재편성, 셋째, 주변국들의 안정화 문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다시

11) 연합뉴스, “종파분쟁-시리아내전이 원인”,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KR20130427061500070.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2) 이미경, 이라크, 시리아 진흙탕 내전에 휘말리나-이라크 접경지역서 시리아군 48명, 이라크군 9명 피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6019016>.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3)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이란 향한 ‘경고메시지’”, 2013. 5. 7.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8일)

14) 동아일보, “헤즈볼라 ‘시리아내전 개입’선언”, 2013. 5. 27. <http://news.donga.com>.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15) 연합뉴스, “레바논서 이스라엘로 로켓포탄 발사”, 2013. 5. 27.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16) Clawson, Patrick, “Post-Asad Syria: Opportunity or Quagmire?”, *Strategic Forum*, 276(2012), 3.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시한 사우디, 카타르, 터키와 같은 아랍 동맹국들 대 이란, 이라크와 러시아, 중국의 친 시리아 진영으로 대립되는 중동 지역 패러다임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불안정한 상황의 확대가 큰 문제로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오랜 숙원관계이다. 시리아는 1945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반 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시 불법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자국영토에 편입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반 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하는 시리아 정부를 비난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는 시리아에 순니 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며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시리아 정부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한 국제공조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리아 무력개입에 반대’의 입장¹⁷⁾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현 정권을 비호해 온 러시아 정부 또한 유엔의 대 시리아 결의안을 거부해 왔다.¹⁸⁾ 또한 같은 쉬아 정권인 이란과 이라크는 직간접적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에게 있어서 시리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할 최전선이다. 아사드 정권 붕괴 시 두 번째 방어 전선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이다. 워싱턴은 매년 테헤란으로부터 헤즈볼라가 1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를 통해 수송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리아 국경이 닫히게 되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대리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역기반인 시리아가 시나리오대로 권력교체가 진행된다면, 결국 이란-시리아-헤즈볼라 축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¹⁹⁾ 그동안 나토와 서방세계는

17) 연합뉴스, “중국, 화학무기 사용 단호히 반대”,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6/0200000000AKR20130426166100083.HTML?input=1179m>.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8) 연합뉴스, “아랍권, 시리아 새 유엔결의 추진”, 2013. 5. 10.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7일)

19) Abdo, Geneive, “How Iran Keeps Assa in Power in Syria”, Foreign Affair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 25, 2011,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8230/geneive-abdo/how-iran-keeps-assad-in-power-in-syria>. (검색일: 2013년 5월 2일)

리비아 사태에 비교적 즉각 개입했던 것과 달리 시리아의 사태에는 선봉리 군사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잠재적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를 사용한다는 보고서가 힘을 얻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배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²⁰⁾ 하지만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아사드 정권을 해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선언은 아사드 정권과 반군과의 잔혹한 유혈 사태를 야기 시켰다.”²¹⁾라고 분석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국제적으로 정권교체와 해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사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아사드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이란이며,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해체 시키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국일보와의 특별시론에서 밝혔다.²²⁾ 즉, 시리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물리적 개입이 필요함에 앞서, 이 사태를 유발한 심각한 개입이 이미 있었다. 포스트 아사드 시리아의 미래는 봄을 지나 안개가 자욱한 암울한 구간에 들어섰다.

IV. 난민문제가 논의가 빠진 시리아 문제

시리아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인도적 차원의 논의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고려가 앞섰다면 시리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리아는 고도(古都)를 간직한 세계사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20) 연합뉴스,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용납 못해”,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 KR20130427003900079.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1) 한국일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 2013. 5. 2,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5/h20130501210101112020.htm>. (검색일: 2013년 5월 2일)

22) *Ibid.*

곳이다. 지금은 교전 끝에 발생한 희생자들의 주검과 집과 가족을 잃고 난민촌을 찾아 길을 나선 시리아 난민들의 울음만이 거리에 가득하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와 지원이다. 시리아 상황이 악화되어 갈수록 살인, 납치, 폭력과 공격, 성폭행 등의 잔혹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²³⁾ 아직까지는 시리아 주변국에서 국경이 잠깐씩 열릴 때마다 몰려드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요르단 국경의 자타리 난민촌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가 극에 달하였다. 결국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U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인근 국가에 대해 2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6천500만유로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⁴⁾ 한국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난민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지난해 1,143명으로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이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는 시리아 난민 146명이 포함되어 있다.²⁵⁾ 하지만 시리아 난민 신청자중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난민신청자는 없다.

한국이 시리아 난민지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아니라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인 난민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다. 한 가슴 아픈 소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압둘 라흐만은 12살이 된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프로축구선수를 꿈꾸던 소년은 집 주위에 떨어진 폭탄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날 이후 알리는 꿈도 함께 잃었다.²⁶⁾ 현재 시리아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펜로즈

23)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submit=GO>.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4) 연합뉴스, “EU, 시리아에 6,500만유로 추가 인도적 지원”, 2013. 5.12, <http://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25) YTN, “지난해 한국난민 신청 외국인 역대 최다”, 2013. 2. 1.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6) CNN arabic, “Abdu al-Rahman, saraqqa saqqiha wa saraqqa hulumuhu.”, 2012. 11. 12, <http://cnnarabic.com>. (검색일: 2012년 3월 3일)

세이브더칠드런 구호국장은 시리아의 한 세대가 총체적으로 내상을 입고 미래로 나갈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²⁷⁾ 시리아 문제는 정치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입은 내상을 보살피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 happy2oj@hanmail.net

27) 경향신문, “시리아 한 세대가 총체적 내상”, 2013.5. 26.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 지금 여기 ■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문 중 현

‘모두를 위한 결혼 법(mariage pour tous, 이하 동성결혼법)’ 이른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프랑스 우파진영의 시위가 거세다. FN을 비롯한 극우파 정당, 제 1야당인 UMP 그리고 전통적 카톨릭 세력의 시위가 2012년 8월부터 진행되어 오던 중 올해 6월 시앙스포 1학년 학생이며 극좌파 단체의 활동가인 클레망 메릭(Clement Méric, 19세)이 파리 벼룩시장에서 스킨헤드들과 사소한 시비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청년의 사망 사건 이후 용의자인 스킨헤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혁명적 청년민족주의자(Jeunesses nationalistes révolutionnaires:JNR)의 대표인 알렉산드르 가브리악(Alexandre Gabriac)은 즉시 사건이 JNR과 무관함을 여론 앞에서 증명해야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JNR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만일 JNR이 불법화 된다고 할지라도 프랑스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은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좌파들은 이 사건을 극우파들의 무책임한 반법률투쟁의 선동에서 비롯된 예견된 재앙으로 간주하면서 프랑스 극우파 운동의 맹동성, 폭력성을 비판하는 반면 우파들은 사건이 우발적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성결혼법에 대한 반대 운동과는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논란의 중심인 새로운 결혼법은 1999년 동성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시민적 결합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동생활약정(PACS)제도가 만들어질 때 보다 더욱 강력한 우익 카톨릭 세력의 반감과 저항을

냥으면서 프랑스 사회를 정치적으로 동요시키고 있다. 2012년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즈음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성결혼법에 대해 적대적인 우파들의 시위가 점점 더 거세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였다. 동성결혼법 반대시위는 정부의 시위대 참여숫자에 대한 사진조작, 경찰의 과잉진압, 찬반 시위대간의 충돌, 동성애자혐오(homophobie)적 폭력의 증가, 법안의 찬반진영을 대표하는 사회적 인사에 대한 폭력 등 여러 선정적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결국 UMP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 새로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사회당 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이번 법률안은 2012년 대선 중 공화국 대통령 후보였던 프랑스와 올랑드의 핵심공약임을 내세우면서 법률이 대선선거결과와 함께 국민의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맞섰다. 이번 ‘모두를 위한 결혼법’은 현재 법무장관인인 크리스띠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일명 토비라 법률로 불리운다. 그녀는 이번 법률을 ‘문명의 개혁(une réforme de civilisation)’이라 주장하면서 법률제정과 의회에서의 통과에 열정적 자세로 임해서 1975년 낙태의 합법화를 주도한 시몬느 베일(Simone Veil)에 비견되는 여성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동성결혼법 제정요구는 동성애 단체와 대선후보였던 세골렌 르와얄(Ségolène Royal),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노엘 마메르(Noël Mamère)등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던 가운데 2010년 일부 사회당과 녹색당 정치인들에 의해 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일부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법률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통적 카톨릭 세력과 이성애자들을 자극하는 점을 우려하여 기존의 PACS제도를 개정, 보완하는 형태로 입양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국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자 동성결혼법은 2012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4월 23일 의회를 통과여 마침내 2013년 5월 17일부터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안논의 즈음에 시작된 우파들의 시위와 사회적 논란은 법안의 공포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결혼제도를 이성부부가 아닌 동성부부에게 허용하는 문제, 이후 동성부부에게도 입양권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허용에 관한 생명윤리적, 법률적 문제이다. 예를 들면 법률제정 이전 2013년 2월 7일에 공개된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의 결정은 동성결혼에 대한 프랑스 사회에서의 논란 지형을 잘 드러내 준다. 최고행정재판소는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동성부부의 입양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족형태와는 다른 ‘법적간주(fiction juridique)’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모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문제 즉, 이성애자 부모에 입양된 아동과 동성부모에 입양된 아동이 스스로 부모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아동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가족의 입양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최고행정재판소는 동성부모와 이성부모들간에 입양조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최종적으로는 제출하였다.

한편 작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거리에서는 법률에 반대하는 열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법안에 반대를 주도하는 핵심 단체인 모두를 위한 시위(La manif pour tous)는 새로운 결혼법이 남편, 부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남녀 모두의 성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사회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은 생물학적인 성적차이에 기반해 있는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적차이를 성적 취향과 젠더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이며, 동성부부에게 허용되는 입양은 입양되는 아동에게 아빠와 엄마를 박탈하는 것으로 차별이자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프랑스에서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공수정(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PMA)과 대리모’에 대한 논란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성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어렵고도 긴 입양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동성부부들이 결국 입양이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가지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법 제정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수정과 대리모 허용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져서 생명윤리를 광범위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 방송인인 프리지드 바조(Frigide Barjot)가 대변인으로 있는 이 단체는 전통적 카톨릭 세력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일약 법률반대 운동의 전국적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극우 스킨헤드에서부터 FN, UMP내의 소수정치인 까지 포함하는 이 거대한 운동에 참여하는 정치세력과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밤하늘에 존재하는 별들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전통적인 카톨릭 복음주의 단체인 시비타스(Civitas, France Jeunesse Civitas 혹은 Institut Civitas)에서 스킨헤드 단체인 JNR까지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소수의 극우운동세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장에 확실히 진입하였다. 새로운 반대자들의 모임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시간 내에 파리의 거리를 점거할 수 있는 기습시위를 진행할 정도로 충분이 조직되었다. 더욱이 이번 시위에서 나타난 프랑스 카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은 30만여 명을 거리로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 프랑스 우파가 카톨릭세력과 전통적으로 거리를 두고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 새로운 카톨릭 우파정당의 움직임이 예견되기도 할 정도이다. 토비라의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운동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on ne lâche rien)'라는 구호아래 어머니의 날인 5월 26일 파리에서는 경찰 추산 1만 5천(주최자 추산 3만 5천), 리옹에서는 9천(주최자 추산 2만), 등 프랑스 곳곳에서 반대운동 시위가 조직되었다. 반대운동의 지도자인 바조는 리옹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적 결함에 대해서는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지만 입양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른 반대운동의 지도자들 역시 반대운동이 현실정치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극우파진영의 확산에 자신들의 운동이 전유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카톨릭 진영의 시위대들은 새로이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시장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요구를 할 정도로 더욱 정치화된 요구를 선명히 드러냈다. 동시에 자신들을 폭력적 극우세력과 구분지으며 평화적 촛불시위의 형태로 다음 대선인 2017년까지 장기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동성결혼법 반대운동의 흥미로운 점은 거리의 시위자들이 현재 프랑스에서의 시위를 아랍의 봄을 연상시키는 프랑스의 봄(printemps français)로 이름 붙이면서 자신들의 민주적 요구를 거부하는 올랑드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때로는 드골에 비유한 점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의 68년 5월 혁명에서 나타난 정치적 구호와 포스트를 적극적으로 전유하면서 비민주적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호소하였다. ‘올랑드는 우리의 피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우파 시위대들은 혁명에 대한 기억과 전통적 좌파정치문화의 기호들을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전통적 좌파와 공산당의 포스트를 전유하는 이러한 반-전복적 상징의 전유방식에 의해 5월 혁명의 해방을 위한 상징들이 배제를 위한 상징으로, 전통적,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전환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혼인신고제도는 대혁명 이후 시민간의 가족적 결합을 국가가 인증하는 하나의 제도로 등장하였다. 결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류의 전통이지만 이것이 국가에 의해 하나의 제도로 포섭되고 부부에게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기 시작한 것은 확실히 근대의 산물이다.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결혼제도 외부에 존재하던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의 동등한 권리,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결혼제도 내부로 자신들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의 통치영역이 입양과 인공수정등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가족형성과 재생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국가의 이러한 통치성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혼법 반대운동을 통해 프랑스 좌우의 가치 대립이 아닌 생명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근대적 권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한양대학교, entendu@naver.com

■ 지금 여기 ■

마우마우 재판의 교훈: 영국의 과거사 반성과 보상

정 희 라

‘영국의 과거사 반성’이라는 말은 웬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인 것처럼 느껴진다. 영국사를 전공하면서도 영국의 과거사 반성이나 식민지 보상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2012년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1950년대 케냐 무장독립단체인 ‘마우마우(Mau Mau)’ 봉기 진압과정 중 영국군에게 고문을 당한 피해자 4명이 영국 정부에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가장 연장자인 파울로 누즐리는 영국군에게 가축들에게 쓰는 펜치로 거세를 당했고, 움부구닌기는 죽도록 맞고 주검들 가운데 버려졌었다. 그리고 여성인 제인 마라는 당시 15세의 나이에 끓는 물이 담긴 병을 질 속에 넣는 성고문을 당했던 피해자였다. 영국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영국이 식민시기 있었던 고문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고, 고문 피해자가 영국 법정에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또한 케냐인들이 국제 사회에 케냐 봉기 때 있었던 진실을 알리는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하였다.



자료: 2012년 런던 고등법원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케냐인 원고들 (사진 왼쪽부터 WambuguNyingi, Jane Mara, Paulo Nzili)

케냐는 제국주의 시대 비옥한 농토와 유럽인들이 살기 적합한 기후로 영국인들에게 영구 이주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었다. 1895년 영국의 보호령이 된 이후 케냐 내륙 고원지대에는 많은 백인 이민자들이 정착하였다. 이후 1930년대부터 케냐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키쿠유족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비폭력저항운동이 있었다.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백인 이주민 우선 정책에 맞서 키쿠유족이 중심이 된 무력투쟁단체인 ‘마우마우’가 결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마우마우의 영국인과 친영파 케냐인에 대한 테러가 시작되자 케냐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영국군을 케냐에 투입시켰다. 그간 역사가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영국인들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던 수치와 오욕의 역사가 드러났다. 영국군의 케냐 봉기 진압 과정 중 9만 여명의 케냐인이 희생되었고, 16만여 명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항쟁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간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비밀문서가 공개되었는데 고문과 폭력, 학살 등에 대한 케냐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헨슬롭 파크(Hanslope Park)에 있는 외무부 비밀문서보관소에서 나온 이 문서들에는 만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함께 이에선 정부의 승인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일도 있었고, 물고문, 강간 등 수많은 잔혹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거세와 성고문이 많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조부도 당시 손가락에 못을 박는 고문을 당하고, 거세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소 판결이후 영국 정부는 2013년 5월 현재 마우마우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역사로부터 기꺼이 배운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갖는 지속적인 특징”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역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가혹행위에 대한 인정을 일본의 태도와 비교하며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함과 비판의식이 요구된다. 영국 정부의 과거사 인정과 피해보상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문서공개와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실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외무부는 잔혹행위에 대한 문서의 존재를 부인했었다. 2009년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국 정부는 피해보상의 책임이 영국 식민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케냐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피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도 케냐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기미가 보이고, 비슷한 식민지배 만행이 있었던 키프로스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가 일본 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일본 법정은 식민통치시기 고문피해자, 그리고 중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소송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본뿐만 아니라 6.25 당시 국군의 양민학살,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등에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노력의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마우마우 재판은 인권을 유린한 영제국의 과오를 알리기 위해 80-9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케냐인들의 승리였다. 또한 영국 재판부의 역사를 직시하는 양심적 태도와 은폐되었던 비밀문서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린 비판적 역사가들의 숨은 노력이 가져온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재판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영제국사에 대한 재고와 역사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마우마우 판결이후 최근 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자문의원으로 추대된 역사가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 『제국(Empire)』(2003)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퍼거슨은 책 서두에서 “치타가 사냥하는 광경, 키쿠유족 여성들의 노랫소리, 첫 번째 우기의 냄새, 잘 익은 망고의 맛이 내 의식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매혹적인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케냐 식민지 생활을 낭만적으로 회상하였다. 그러나 키쿠유들의 학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학살이나 무력진압에 대한 언급은 책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정주의 역사가들과 좌파 언론들은 유럽중심주의적이자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퍼거슨이 역사교과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영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우마우 재판이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영국사 연구자들에게 과거사 반성이 영국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주제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또한 일반 독자들도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길 희망해 본다.



자료: 1954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마우마우 전사들

경희대학교, heerachung@hotmail.com

■ 책을 읽고 ■

임상래,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이담, 2013), 340쪽.

김 연 진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 전체 인구 중 1/6이 넘는 이들이 라티노라 발표함과 동시에 라티노 인구가 미국 제 1의 소수 인종임을 재확인하였다. 사실, 라티노는 미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종 민족 문화 집단 (racial ethnic group)’으로 이들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는 “라티노 파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라티노 공동체는 과거 특정 지역 중심성을 벗어나 미국 남서부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어 지며, 라티노 중간 계급의 성장과 함께 이들의 경제력도 급속하게 성장하여 미국의 기업들은 라티노 구매력에 호소하기 위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를 디자인할 정도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라티노 표를 의식하여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티노 문화의 여러 측면들이 미국 대중문화에 통합되어 지고, 따코(taco), 또띠야(tortilla), 살사(salsa), 마가리따(margarita)는 피자, 베이글, 케첩, 그리고 쿨 에이드(Kool-aid) 만큼이나 대중화되어 있다. 라티노 TV와 라디오 방송도 전국적 방송을 통해 영어 단일어 방송에 도전하며 이중 언어 방송을 통해 라티노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라티노와 라티노 문화의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미국 내 라티노 연구가 활성화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라티노의 역사와 경험 등에 대하여는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라티노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은 라티노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임상래 선생님의 역작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는 라티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친절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민/이주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일방적 인구 이동만이 아니라, 이민의 유출국과 유입국 쌍방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전 지구적 움직임의 일부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현재, 『라티노와 아메리카』는 라티노 이슈를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어느 한 곳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이슈”(6쪽)로 규정하며, 일국적 관점과 틀에서 벗어나 초국가적(transnational) 틀 속에서 라티노 이민/이주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국적 관점을 넘어 초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라티노를 살펴보며, 라티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라티노는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이민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내 라티노 인구는 단순히 이민이라는 인구 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들일 뿐 아니라, 간단하게 라티노라는 명칭만으로 동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집단도 아니다. 라티노란 출생지 또는 선조의 기원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사실 근래까지도 스스로 그러한 명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라티노라는 명칭은 원래 학술연구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한 용어였다. 라티노는 하나의 인종 또는 하나의 소수 민족 집단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집단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집단이 하나의 통합된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이 집단의 경계와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규정이 지극히 유동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출생 국가별로도, 정치적으로도, 동화 정도도, 성별 구성 면에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이들이 공통성, 즉 언어(스페인어)와 종교(가톨릭) 및 관습 등 문화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라티노라는 포괄적 용어가 이들을 이해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 또한 라티노를 한마디로 하나가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출신국가 별로 다양하며 개별적”인(48쪽) 존재임과 동시에 동질성을 보유한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라티노를 “인종이나 종족적 의미를 포괄한 문화적 범주”(40쪽)하의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티노 이민에 접근한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다. 필자는 다양하면서도 동질적인 라티노와 라티노 관련 이슈를 논함에 있어, 라티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라티노 이민의 전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 라티노 이민의 특성 및 고유성, 라티노 정체성, 이중국어 문제, 미국의 라티노화(라틴 아메리카화), 불법이민과 반 이민주의, 남서부와 미-멕시코 국경의 특징, 라티노 파워, 미국 내 라티노와 본국과의 유대, 그리고 라티노와 한국이민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필자는 크게는 라티노 이민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라티노 이민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 라티노의 인구 증대 및 사회적 진출의 증대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도 증대되면서 미국 내 라티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라티노의 불법 입국의 증가, 비동화성(최소한 느린 동화속도), 사회 경제적 낙후성,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그리고 전반적 미국 내 반 이민주의로 인한 반 라티노 정서의 부상, 미국의 사회 안보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라티노 문제의 대두를 논한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라티노가 미국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 즉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체로서의 라티노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민이란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 걸쳐 있는 이슈이므로, 모든 이민 관련 연구가 그러하듯이, 이 연구 또한 이민 배경 및 정책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라틴 아메리카인의 역내, 역외 이주/이민의 성격 및 특징을 살펴본다. 필자는 정치적 불안, 경제적 위기, 사회 문화적인 욕구 등 다양한 배출 요인(push factor)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와 같은 흡입 요인(pull factor)의 상호 작용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인은 대체로 미국에서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로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접 미국에서의 물질적 성공에 대한 꿈은 지속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인의 미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겨, 미국의 라티노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 인구의 지속적 급증세를 낳았다고 한다. 필자는 라티노가 미국인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산율도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적 증가세가 지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국의 이민 정

책의 역사적 전환, 즉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라티노 불법(미등록) 이민의 증가, 라티노의 교육, 소득, 취업률 등 사회 경제적 낙후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티노의 제 특징과 성격을 고려하며, 라티노의 대표 격으로, 미국 인구의 1/10, 라티노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멕시코 이민에 주목한다.

필자는 “그링고(Gringo)와 히스패닉 문화와 관습이 공존하는”(202쪽), 가장 비미국적인 곳으로서의 남서부, 멕시코의 북부에서 미국의 남서부가 된 이 지역의 고유성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자 두 종류의 문화, 두 개의 세계, 그리고 두 경제가 나뉘지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경제 통합과 양 세계간의 소통 및 상호 의존성의 상징으로서의 국경을 살펴본다. 멕시코의 역사의 일부이자 영토였기에, 또한 오늘날 가장 많은 라티노 특히 치카노가 거주하기에 인종과 문화, 인구와 언어 면에서 가장 멕시코 적인 남서부, 혼종과 혼혈의 땅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혼종으로서의 라티노의 땅이기도 한 남서부를 필자는 “멕시코의 부활”인 한편, “멕시코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한다. 그런가하면, 국경은 “두 나라를 나누고, 경계하는 벽”이며 “두 나라가 만나고 통하는 문”(15쪽)으로 “경계와 무경계가 공존”(16쪽)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한편으로 국경은 반 이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강화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왕래의 증대로 인해 약화되기도 하는 곳으로, 브라세로(bracero), 마킬라도라(maquiladora)와 나프타(NAFTA)와 같은 초국가적 접근으로 인한 초국가적 ‘협력과 발전의 땅’이자 ‘대립과 갈등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필자는 라티노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양 지역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에 라틴 아메리카 이민과 관련된 양면성을 또 다시 제시한다. 라티노의 급증은 불법 이민자의 문제, 라티노의 낮은 동화도와 이중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라티노를 사회 및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 내 반 이민주의의 타겟으로 만들고, 이들을 미국의 이민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고 본다. 그런가하면, 멕시코아메리카(Mexamerica), 멕스캘리포니아(Mexcalifornia)와 같은 새로운 혼종 지역의 탄생 가능성과 라티노의 정치 참여 및 구매력의 증대, 그리고 이중 언어의 확산 등,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에 기반을 둔 라티노 파워(Latino Power)의 등장을 논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미국의 라티노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화'라 이해한다. 미국의 라티노화란 '라틴 아메리카 외연의 재구성'이자 "라티노 세계의 확장"(15쪽)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국이 세계를 미국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비미국화'되고 '라티노화'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티노가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에 이어, 필자는 라티노가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영향에도 주목한다. 미국 내에서 상호 부조의 목적으로 형성된 이민자 조직들이 본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본국과의 소통에 대해 언급하며 송금이든, 투자이든, 투표권의 행사이든 여러 방식으로 본국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민자 단체의 초국가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른바 이민이란 구세계와 신세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연속성을 갖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를 넘어 이민이란 신세계에서의 경험으로 구세계의 변화도 야기하는, 지극히 역동적일 뿐 아니라 일국적 이해로는 부족한, 진정 초국가적 이해를 요구하는 주제임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라티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루어 - 최소한 언급이라도 함으로써 -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연구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되, 일정 정도의 깊이와 구체성을 띄어, 포괄성과 구체성의 적절한 균형감이 뛰어난 연구이기도 하다. 또 이 연구는 라티노 이슈에 접근하되, 다양성과 보편성간의 균형을 취하며 일면적 고찰보다는 다면적 고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라티노 연구의 범주를 미국만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확장시켜 라티노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킨 연구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라티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당면하고, 앞으로 마주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역으로 이 연구의 장점, 즉 포괄성과 구체성간의 균형, 보편성과 다양성 간의 균형, 다면적 고찰, 그리고 확장성이 이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도 지적될 수도 있다. 많은 이슈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균형 및 확장을 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연구가 라티노 관련 특정 주제 각각에 대한 구

체적이고 집중적인 접근, 보다 깊은 고찰이라는 측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 라티노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에서 어떻게 라티노와 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날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선언적 주장만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총 13장 30절이나 되는 지극히 세분화된 구성 방식을 취함으로써 논의가 지나치게 분절되는 점, 각 장과 절의 연계가 그리 매끄럽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약간의 문제가 국내 라티노 연구 및 미국 이민 연구, 더 나아가 국제 이민/이주 연구에 기여한 이 연구 『라티노와 아메리카』의 의미와 성과를 퇴색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단국대학교 사학과, yjkim@dankook.ac.kr

■ 책을 읽고 ■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 출판부, 2013), 400쪽.

신 동 규

I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 북유럽과 지중해,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비옥한 토지, 사통팔달의 교통로 등 경제 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선사시대 이래로 인구유입이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역사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졌던 프랑스는 20세기 들어 출생률의 감소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력손실로 말미암아 인구증가가 정체되면서 1930년에는 외국인 증가율이 미국을 앞지르는 주요 이민국-외국인 노동자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주요 생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파괴는 경제복구과정에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으며 아프리카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아프리카 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2대 중의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아파트와 도로의 90퍼센트를 건설”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20세기 전반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유입된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의 존재는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역사적 배경인 동시에,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어렵게 -어쩌면 불가능하게- 만드는 복잡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권의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독자가 하나의 단일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박단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은 적어도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무슬림을 상징하는 니캅을 쓴 여성과 공화국의 상징인 프랑스 삼색기 사이에 자리잡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진, 그리고 라이시떼(Laïcité)를 요구하는 군중을 향해 히잡을 쓴채 작은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합성된 이 책의 표지 사진이 보여주는 역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복잡성을 드러내 준다.

이 역설은 공화국의 상징성과 무슬림의 표상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저자가 강조하듯 “프랑스는 대혁명 이래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이라는 이념과 함께 보편주의적 전통을 추구해 왔다. [...] 즉, 공화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신이나 인종,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프랑스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6쪽). 그러나 삼색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정신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또 진정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점”(362쪽)이 저자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사실에 유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민자들의 통합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원칙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 ‘프랑스의 문화전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캅을 쓴 여성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의 행간은 프랑스 주류 문화가 만들어낸 이슬람 여성의 표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저자가 “이슬람의 세속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인 무슬림 여성의 히잡과 부르카 착용이 프랑스 사회 일부에서 크게 떠들어 대듯이 그리 심각한 차원은 아니기 때문이다”(335쪽)라고 강조 하듯이, ‘소수의 저항’하는 이미지는 무슬림 전체에 대한 ‘낙인찍기(stigmatisation)’를 하는데 효과적인 선동 장치이자 반이슬람적인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배제를 전제로 하는 - 또는 다수의 배제를 지양분으로 하는 소수의 통합 - 통합을 상징하는 공화국의 삼색기와 프랑스의 전체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도배되는 니캅을 쓴 소수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모순은 표상과 현실/원칙과 실제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

며, 이는 우리에게 항상 이 사이의 경계에서 사유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을 읽는 즐거움은 바로 이 경계에서의 줄타기가 주는 아찔함이 아닐까?

II

그러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프랑스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잡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저자가 어떻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나갈 것인지 짐작케 한다. 제라드 누아리엘(Gérard Noiriel)의 『프랑스적 용광로(Le Creuset français)』가 프랑스 사회에 녹아들 어간 이민자 문제를 다루면서 ‘외국인’이 프랑스인화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민족정체성(identité nationale)’이 정의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설명했다면, 박단은 공화국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녹아들어가지 못한 - 또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프랑스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 이민자 집단을 추적하면서 그로부터 ‘민족정체성’ 담론이 형성되고 프랑스인의 정체성이 신인종주의와 함께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1988년 발간한 『프랑스적 용광로』를 통해 역사학자 누아리엘은 그동안 프랑스의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이민자를 주체화 시키면서, 경제발전에 능동적(aktif)으로 참여했던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가 역설적이게도 국가체제에 의해 수동적(passif)으로 규정되는 이중적인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이민현상과 민족정체성 문제를 용광로에 녹은 쇳물처럼 여러 인종이 뒤섞여 버린 프랑스 사회 내부의 시각을 통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반면에 박단은 공화국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명목적으로는 프랑스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경제·문화 각 영역의 각종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권리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포함’을 만들어 내는 기제인 ‘프랑스적 용광로’라는 매커니즘을 재고하는 것부터 사유를 시작해 ‘프랑스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러한 박단의 관점은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차별에 관한

분석을 한 역사학자인 파트릭 베이(Patrick Weil)의 연구성과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2세대가 주도하는 급진적 정치운동인 ‘공화국의 원주민(Indigène de la République)’ 운동의 담론을 분석한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박단의 분석은 이들 프랑스 지식인들의 연구와 비교해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계급, 종교, 인종, 민족 등 다양한 요소를 교차하여 비교하는 박단의 시도는 많은 부분 프랑스의 연구성과를 계승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참신하며 탄광, 학교, 방리유 등 다양한 공간을 역사 분석의 장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프랑스의 ‘민족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랑스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의 경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은 프랑스 사회에 대한 내부의 시각-프랑스인의 관점-과 외부의 시각을 교차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프랑스내의 ‘이방인들’과 공화국 원칙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에서 전간기 폴란드 광산노동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이민자, 20세기 말에 등장한 ‘새로운 반유대주의’, 이방인들의 공간으로써 방리유와 학교,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한 민족정체성 논쟁, 그리고 공화국 시민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왜 21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민족정체성’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민족정체성 문제의 정치쟁점화는 사르코지의 2007년 대통령 선거전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과 ‘우리’의 인위적 간격을 만드는 구분시도는 사회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좌파에 더 우호적인 사회문제를 주변화시킴으로써 [사르코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을 창출한 바 있다”(26쪽)는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민족정체성 담론이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화주의 통

합방식이 역설적이게도 민족정체성 담론과 만나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에 만연했던 이민자의 차별구조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 폴란드 출신의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기 사이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럽계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타국을 최종 이민지로 선택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사실은 제3공화국의 통합정책과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처우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즉 ‘떠남’을 선택함으로써 “프랑스공화국 시민으로 동화되기 어려웠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366쪽). 이를 논증하기위해 저자는 에밀 졸라의 소설 『제르미날』과 에릭 바르비에 감독의 영화 『하얀외침, 검은 태양(원제: Le Brasier)』에 투영된 광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미지화 된 이민자들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계급의식’에 앞서 ‘민족감정’으로 부터 비롯된 문화적 차이가 프랑스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 차이의 다름을 강조하는 신인종주의적 담론과 결합된 민족정체성 논쟁과 이민자 통합정책의 한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제3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알제리 전쟁을 전후로 프랑스에 정착한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시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민자들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보수화 되고 있는 프랑스 주류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는 데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6쪽) 즉 항구적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비숙련 노동에 집중적으로 고용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고용문제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이민자 2세대, 3세대가 태어나는 시점까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히잡 금지’에서 ‘부르카 금지’로 나아가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라이시테’ 문제가 ‘세큐리테(sécurité)’에 관한 담론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제1장에서 분석한 ‘민족정체성’ 논쟁이 결국 프랑스의 문화적 ‘안보’ 담론과 직결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사회가 이방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유대인 청년 폭행사건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반유대주의 행위’의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대인혐오주의와 인종주의를 구분하면서 오늘날 유대인을 ‘특별한 이방인’으로 취급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 사건의 가해자가 아랍계 및 흑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이 폭행사건이 전통적인 반유대주의와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제4장의 분석은 이 사건의 성격이 반유대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행위로 정의하려는 정치적 표상화 작업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써 방리유와 학교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도 영화 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마티유 카소비츠의 영화 『증오 (La Haine)』를 통해 파리가 있을 때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방리유의 공간성에 주목하면서 이 곳에 만연한 실업, 가난, 멸시, 불신, 그리고 증오가 어떻게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프랑수아 베고도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클래스(원제: Entre les murs)』는 이민자 출신 중학생들과 주류사회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영화속의 상징적 사건들이 실제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이민정책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의 모습은 ‘프랑스 이민자 전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 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은 학교가 이민자들이 공화국에 통합되는데 필요한 보편적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일차적 사회화 공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영화의 원제에 등장하는 ‘벽 (murs)’이라는 단어는 “소통의 단절”을 의미 하는 것이다.(307쪽)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저자는 학교가 프랑스 주류사회와 이민자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제도가 아닌 ‘공간’으로써 이민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프랑스 내 이방인이 겪고 있는 사회통합에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2세대들이 대도시 근교에 주류 프랑스인들과 격리된 채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아래 생활하면서 제2급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세대, 민족적 기원, 성별, 혹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보일 수 있는 “프랑스 내의 무슬림들을 모두 하나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322쪽)고 주장하면서도 대다수 무슬림의 공통된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동일한 시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무슬림들이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은, 즉 ‘세속화가 덜 된 사람들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322쪽)이며 이러한 선입견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프랑스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337쪽)

결론적으로 박단은 ‘프랑스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10여년 간의 노고의 총체인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민자들이 “세속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종교 문화적 측면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IV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이 프랑스 사회가 담고 있는

민족정체성과 이민문제에 대한 내부의 시각-프랑스인의 관점-과 외부의 시각을 교차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있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저자가 서문에 밝히 듯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외국 출신의 프랑스 노동자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2세대들과의 적극적 교류는 “긴요한” 역할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경험, 삶의 방식 그리고 사회인식 등 구체적 사례들이 본 연구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듯하다. 구술사나 인류학적 접근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미시적인 묘사를 통한 이민자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현재사’를 다루고 있는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이기에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이유로 무슬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여러 기록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곳곳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중심은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무슬림의 표상과 ‘동화’와 ‘통합’의 이름으로 ‘배제’를 정당화하는 민족정체성 담론에 대한 고찰에 있는 듯하다. 기존의 사회경제사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매체분석을 통한 문화층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완하면서 이민자들이 겪는 차별구조와 그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작동원리를 새롭게 통찰했다는 장점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제2장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사적 분석이 가지는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라이씨떼 문제에서 출발해 이민자들의 통합문제를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해 다시 라이씨떼 문제로 돌아가 보는 역추적이 필요할 듯하다. 이는 결국 치밀한 사회경제사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한 공장을 연구한 로르 피티(Laure Pitti)의 분석이나, 방리유에 대한 아니 푸르코(Annie Fourcaut)의 연구 그리고 이민자 주거지에 대한 뵈상 비에(Viencent Viet)의 연구 등의 성과를 종합해 왜 라이씨떼 문제가 이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유익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이 씨줄의 역할을 한다면 이후 날줄의 역할을 하는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이 씨줄이 ‘프랑스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전제로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하는 배제의 동학이 공화국의 가치에 부응하는 프랑스인을 설정하고, 소수자에게 문화적인 강요를 하는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면서 프랑스인이면서(국적자) 프랑스인이 아닌(무슬림) 동시에 프랑스인이 아니면서(북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경계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했다면, 날줄이 될 연구는 다시 한번 ‘프랑스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경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한권의 책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북대학교, jajusdk@naver.com

이민 · 인종연구회 회칙

제정: 2009년 2월 16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민인종연구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ity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민인종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에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 『서양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2), √12.

(예2) 홍길동,√ 「그리스인의√역사서술」, √허균√편,√ 『서양고대사√강의』 (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 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 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

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 A. Fletcher & P. Roberts, eds.,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

-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 「호레이쇼 열저와 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1996), 12.

홍길동, 『프랑스 근대사 연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2.

(예2) 木畑洋一, 『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 (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6年).

(예3) 草光俊男, 「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 『史学雑誌』, 3号(2004).

-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Église - 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15.

-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364.

(예3) 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3.

- 홍길동, 같은 책, 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20.

- Ibid.

- Ibid.,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서울:길동출판사, 1998), 13.

→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15.

(예2)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20.

→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 J. Hobsbawm, *강명세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길동출판사, 1994), 30.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서평 형식 및 표기(안)

- √ 서평에는 따로 제목을 달지 않는다.
- √ 해외 문헌인 경우, 제목은 원서 그대로, 본문에는 번역 제목을 명시한다.
- √ 본문의 기본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 목

필 자
이 태 정

본 문

(필자 정보: 소속, 이메일)
(한양대 사회학과, 123@4567.890)

1. 국내문헌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서강대출판부, 2011, 400쪽.

2. 번역서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 제목, 저자, 출판사, 000pp.
예: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사회의 재창조』
조너선 섉스 지음, 서대경 옮김, 말글빛남, 2009, 520쪽.
The Home We Build Together, Jonathan Sacks, Continuum, 272pp.

3. 해외문헌인 경우

제목(이탤릭)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400pp.

4. 목차 표기 방법(지난 호에 기준해서 수정)

<서평>

책 제목, 저자.

필자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권은혜 ----- 00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박 단 ----- 00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